

楊上善과 王冰 注釋의 比較論的인 研究 (I)

金基郁·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ntary of 'Yang Shang Shan(楊上善)' and Wang Bing(王冰)'

This dissertation examines methods and contents of annotations and compares annotations by 'Yang Shang Shan(楊上善)' with those by 'Wang Bing(王冰)'. It is accomplished in terms of the two comparative examinations laying stress on the cosmic dual forces, the Five Elements, the four seasons, Taoism, the internal organs, and organic diseases based on the medicine of internal meridian. The results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Huang Di Nei Jing Tai Su(『黃帝內經太素』)' consisting of 162 chapters of 'Su Wen(『素問』)' and 'Ling Shu(『靈樞』)' was reorganized into 20 classes in accordance with its contents, and then each class was divided into a few smaller classes. So it was established in good order and the system of the original text was considerably enhanced. 'Yang Shang Shan' made a first attempt in the classification of 'Nei Jing(『內經』)' and opened a good new method of this study. His annotations were written in laconical style throughout the books on the basis of scholia of a Chinese classic. The original was not modified on his own authority so that it has been well conserved.

Wang Bing filed volumes of 'Huang Di Nei Jing Su Wen(『黃帝內經素問』)' and annotated displaying his originality. He never mentioned any words in a few parts or just picked up quotations from other books in other parts, while he annotated down to the minutest detail in the part of astronomy, 'Li Xiang(曆象)', 'Shi Ling(時令)', etc, which he was interested in.

To sum up, Yang's annotations are rich in ideas and are refined although they are slightly inclined to speculative trends, while Wang's annotations are specific and profound and are expressed easily but to some extent arbitrarily.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 differences of interpretation come from their surroundings of the age and personal characters. First of all, the differences mainly result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at they had. 'Tai Su(『太素』)' was officially written by 'Yang Shang Shan', who was a government official and took an official order from government, while 'Su Wen(『素問』)' was personally written by 'Wang Bing', a government official not related to medicine.

'Yang Shang Shan' contributed much to the art of acupuncture. He described each route of vitality and arranged the spots on the body important for acupuncture. He formulated a unified system combined with the meridian routes and spots by describing acupuncture points, the methods of selecting the spots and the common treatments in detail.

So far, I have comparatively examined medical ideas between 'Yang Shang Shan's annotations for 'Huang Di Nei Jing Tai Su' and Wang Bing's annotations for 'Huang Di Nei Jin Su Wen'. This

study has some difficulty approaching what the two medical practitioners intended to do because the times when they lived are very far from today. But it is worth studying their medical ideas because both were pioneers who expounded oriental medicine theoretically. It is expected that deeper research about the two medical practitioners will be accomplished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Huang Di Nei Jing Tai Su (黃帝內經太素), Huang Di Nei Jing Su Wen (黃帝內經素問), Yang Shang Shan (楊上善), Wang Bing (王冰)

1. 序 論

일반적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학문 중에서 '注釋'이 이룩한 역할은 대단히 크다. 고전에 대한 가치와 권위를 부여하여 이를 존중한 동양인에 있어서 고전에 관한 '주석'은 단순히 語句의 해석이나 의미의 敷衍、解說만이 아니라 주석하는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피력하여 후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啓導하는 곳이기도 했다. 儒家의 경전인 四書三經이나 老子、莊子、諸子百家 등의 原典에 관하여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주석서가 저술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으니, 유가의 경전에 비교되는 최고의 의학 경전인 『黃帝內經』(이후 『내경』이라 簡稱함)과 『傷寒論』에 대해서 역대에 걸쳐 많은 사람이 각가지 주석을 달아왔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楊上善(이후 楊이라 簡稱함)과 王冰(이후 王이라 簡稱함)은 『내경』을 초기에 注釋한 양대 산맥으로써 후대 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학의 최고 경전인 『내경』에 관하여 『素問』을 처음으로 注釋한 사람은 齊梁시대의 全元起이며 그의 『素問訓解』는 최초의 『내경』注解書이다. 唐代 초기에 이르러 楊은 『소문』과 『靈樞』를 처음으로 내용 별로 分類、編寫하여 類編하였고, 그 이후 『소문』 九卷을 다시 새롭게 分卷하여 二十四卷 八十一篇으로 篇目을 개

편한 것은 唐代 중기의 王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典籍이 전해진 과정에서 불 때 全元起的 『素問訓解』는 철저히 유실되었고(林億의 『新校正』에서 인용한 자료만 남아 있다), 『太素』는 공백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존되어 왔고 몇 권이 殘闕되었으며, 王이 重編、注釋한 『素問』은 오늘날까지 손상됨이 없이 잘 보존되어 왔다.

『運氣七篇』을 제외한 王의 『素問』과 楊의 『太素』는 문자와 어휘가 약간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의 약간 이상이 같은 내용이고, 楊과 王은 거의 같은 원문에 주석을 달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두 가지 注에 나타난 의학적인 사상을 비교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黃帝內經太素』와 『黃帝內經素問次序』를 통하여 楊王의 注釋에 있어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론에서 陰陽의 大綱、五行論의 適用、四時의 認識과 養生、道家思想의 影響에 관한 의학 이론 부분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즉 본 논문은 楊과 王의 비교론적 고찰의 시도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주석에서 나타난 注釋者의 의학 사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太素』 원문은 仁和寺 所藏의 舊鈔本인 『黃帝內經太素』의 영인본을 底本으로 삼고 清袁氏 漸西村舍 寫本¹⁾ 및 蕭延平 版本²⁾을 참고하였으며, 王의 것은 明朝 嘉靖年 顧從德 重雕版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³⁾

1) 『黃帝內經太素』: 清袁氏 漸西村舍 寫本, 中國書店出版, 1994.

2) 蕭延平이 影寫本과 袁刻本을 기초로 하여 校勘을 하고 民國 13(1924)년에 처음으로 간행한 서적이 『黃帝內經太素』이다. 그 이후에 이 책은 1955年 北京의 人民衛生出版社에 의하여 影印하여 復刊되어 같은 출판사의 活字본도 현재 간행되고 있다.

·접수 : 2000년 1월 28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김기옥, 경북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학학교실
(054-770-2664, kkw@dongguk.ac.kr)

(인용문은 『黃帝內經素問校注』⁴⁾)을 참조하였다.

II. 本 論

1. 生涯와 時代

1) 楊上善

북송의 인종(仁宗)년간(1022~1063)에 칙령으로 『소문』을 교정⁵⁾한 高保衡, 孫奇, 林億 등은 “양상선은 왕빙 이전에 『소문』에 주석을 단 全元起와 같은 隋代 사람이다”⁶⁾고 하였으며,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에서도 “양상선은 隋代 의사로 大業年間(605~616)에 太醫待御로 명성을 떨쳤다”⁷⁾고 기록되어있으며, 王應麟(1223~1296)은 『漢藝文志考證』에서 “黃帝內經十八卷……隋楊上善纂”⁸⁾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이외에 明代 李濂의 『醫史』(1514), 清代 陸心源(1834~1894)의 『函宋樓藏書續志』⁹⁾, 丁丙(1833~1899)의 『八千卷樓書目』¹⁰⁾ 및 『中國圖書聯合目錄』 등에서 이를 지지하였다. 훗날 楊이 隋人이라는 학설은 아마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楊을 唐代 초기 사람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楊이 隋人이라는 說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

며, 唐代 사람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石原明, 楊守敬, 矢數有道 등이 있고¹¹⁾, 특히 楊守敬은 『日本訪書志』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¹²⁾.

첫째, 『태소』는 『隋書·經籍志』에는 나타나지 않고 『新舊唐書·藝文志』에 『黃帝內經太素』 30권, 『黃帝內經明堂類成』 13권이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태소』 매권의 첫머리에 “通直郎守太子文學臣 楊上善奉勅撰注”라 되어 있다. 楊의 官名을 “通直郎守太子文學”이라 하여 『태소』 每卷마다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唐의 顯慶年間(656~660) 이후 인물일 것이다.

셋째, 楊씨의 주석 가운데는 老子를 “玄元皇帝”라 칭하였는데, 이는 唐·高宗 乾封元年(660)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넷째, 避諱한 것으로 보아 唐代에 成書된 것이다. 이를테면 ‘淵’은 高祖의 諱이며, ‘丙’은 太祖의 諱이며, ‘也’는 太宗의 諱이며, 또한 ‘民’字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째, 杜光庭은 『道德經廣聖義』에 “양상선은 高宗 시대의 사람이고 『道德集註眞言』 20권을 만들었다”고 하였다¹³⁾.

이상은 楊守敬이 문제 삼아 唐人說을 증명한 다섯 가지 근거이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고,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반드시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태소』가 세상에 출간된 상황이 확실치 않고 역사가들이 기재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에 楊守敬이 언급한 바와 같이 “通直郎”이라는 관직은 수나라 이전에도 있다. 또 魏나라 때에 처음으로 설치된 “太子文學”은 晋나라 이후에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後周(北宋)의 建德 3年(574)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唐代에 이르러 顯慶年間에 부활된 것으로 『唐六典』에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 3) 顧從德 重雕版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臺灣, 民國 49(1960)年 初版
- 4) 郭霽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 5)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의 『新校正』本을 의미한다.
- 6) 「素問序」에서 “及隋楊上善纂而爲太素, 時則有全元起者, 始爲之訓解……”라 하였지만 『醫籍考』 권3에서는 “全元起가 隋代 사람이라는 설은 의문이 있으며 多記元胤은 南北朝의 齋梁 사이의 인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 7) 徐春甫 : 『古今醫統大全』上 「歷世聖賢名醫姓氏」,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22.
“不知何郡人, 大業中爲太醫待御, 名著當代稱神……”(臺灣, 新文豐出版公司, 1978, p. 33). 明代 李濂도 『醫史』에서 양상선을 수나라 사람이라 하였다.
- 8) 李茂如 외2人 編著 :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p. 4.
- 9) 上掲書 : 『函宋樓藏書續志』, p. 940.
- 10) 上掲書 : 『八千卷樓書目』, p. 1087.

- 11) 楊守敬, 『日本訪書志』 권9. 矢數有道 : 「國寶仁和寺本黃帝內經太素에 관한 研究」, 漢方과 漢藥 10권 5號, 1943. 『方證學後世要方釋義——素問活用論文集——』, 自然社, 1977.
- 12) 前掲書 :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pp. 1012~1013.
- 13) 新旧 『唐書』에는 楊上善의 著述인 道書八部와 醫書二部가 記載되어있다.

“태자문학”은 隋代에는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楊이 隋人이라는 학설은 잘못된 주장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隋의 張鈞衡은 『適園藏書志』에서 “양상선은 周(後周)時代に 활동하였으며 『태소』를 저술하고 隋의 太業年間에 ‘太醫待御’가 되었다”¹⁴⁾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古今醫統』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楊守敬은 이 학설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관직명에만 주목한다면 이런 견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직명은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이를 확실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네 번째 주장한 것과 같이 唐代의 鈔本은 그 이전의 서적이더라도 避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역시 확실한 근거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책의 殘卷인 “丙主左手之陽明”의 注에서 景丁은 陽明에 속한다 하였는데, 唐人이 太祖의 이름인 丙을 避諱하여 景이라 하였기 때문에 楊이 唐代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924년 蕭延平이 교정하여 蘭陵堂本 『태소』를 간행할 때에도 이를 근거하여 보충하였는데, “檢本書楊(上善)注, 凡引老子之言, 均稱玄元皇帝, 考新舊『唐書』本紀, 追號老子爲玄元皇帝, 在高宗乾封元年(666)二月, 則楊爲唐人, 更無疑矣”¹⁶⁾라 하였다.

세 번째 근거에 있어 老子를 “玄元皇帝”라 한 것은 唐高宗 乾封元年 2月の 사건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老子를 “太上玄元皇帝”라고 『舊唐書』에 기재되어 있다¹⁷⁾. “玄元皇帝”와 “太上玄元黃帝”는 약간 다르며 乾封元年 이전에도 노자를 “현원황제”라 부르는 관습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楊 선은 道家思想에 정통했다. 그의 학설을 보면 다른 곳에서 인용한 부분을 明示한 것이 많지 않고, 분명히 『莊子』를 계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명시하지 않는 것¹⁸⁾ 등의 경우

가 있다. 그런데 “현원황제”의 이름만은 몇 번이고 밝히며 그 말을 인용하고 있다. 唐朝는 國姓이 李씨로 老子인 李耳의 姓과 동일하며, 또한 老子를 대단히 존중했다. 따라서 楊도 이를 근거하여 老子의 追號인 “현원황제”를 일부러 명시하고 자주 언급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근거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강한 것은 다섯 번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丹波元胤의 『醫籍考·醫經六』에서 밝힌 내용이다¹⁹⁾. 杜光庭(850~933)은 唐末五代 사람으로 처음에는 經史에 몰두하였지만 훗날에는 天台山에 들어가 道士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東瀛子(登瀛子)라 불렀다. 醫書인 『玉函經』의 필자로서도 알려져 있다. 杜光庭은 『道德經廣聖義』에서 太子司議郎 楊上善은 高宗 때의 사람으로 『道德經集注眞言』 20권을 저작하였다고 하였다. 두광정은 唐高宗이 죽은지 겨우 200여년 지난 시기의 사람으로 林億보다 시대가 빨라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더욱이 楊이 수많은 老莊類를 저작하였기 때문에 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광정이 종교적인 전승관계에서 아마 楊이 생활한 시기에 한층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楊이 唐代 사람이 틀림없고, 『태소』는 唐代에 撰하였음이 틀림없다. 또한 顯慶年間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 고종은 顯慶4년(659)에 蘇敬의 進言을 받아들여 李勣 등에 명하여 『新修本草』를 찬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기를 전후하여 의학이론에 대한 저작도 撰注할 것을 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종은 文學을 애호한 황제로 顯慶2년에 李善으로 하여금 『文選』을 注하게 하였고, 咸亨4년 이후 또한 國史를 수찬할 것을 명하였으며, 上元2년에 『烈女傳』, 義鳳元년에 『後漢書』 注 등이 있어 『黃帝內經太素』도 고종 시기의 顯慶年間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²⁰⁾.

杜가 말하는 楊上善의 관직명인 “太子司議郎”은 『태소』의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으며, “通直郎守太子文學”과는 다르지만 관직의 이동은 아주 흔한 것이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앞에서 든 다섯 가지

14) 岡西爲人 : 『宋以前醫籍考』, 古亭書屋, 1969, 臺灣, 第一冊, p.46

15) 張鈞衡의 학설에 관한 楊守敬의 소개는 불충분하다.

16) 裘沛然 외22인 : 『中國醫籍通考』 권1,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23.

17) 『舊唐書』卷五高宗本紀, “二月己未, 次亳州, 幸老君廟, 追號曰太上玄元皇帝, 創造祠堂, 共廟置令, 丞名一員……”라 하였다.

18) 『莊子』에서는 불과 1군데, 권 6권의 머리(篇名未詳)에 書名을 明示한 引用이 있다.

19) 丹波元胤 : 『中國醫籍考』 권6 「醫經」,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9.

20) 廖育群 : 『中國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1998, p.255.

근거가 모두 확실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셋째와 다섯째의 근거로써 楊上善을 唐初 高宗年間(649~683)에 활약한 인물이라 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 견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애나 경력 등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는 분명하지 않다. 『道德經』의 주석을 달았다는 점에서 道家思想에 빠져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2) 王冰

王은 唐代 중기의 사람으로 景雲, 貞元年間(? 710~804)에 살았고 향년 90여세였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冰名見新唐書宰相世系表, 稱爲京兆府參軍. 林億等引人物志: 謂冰爲太僕令, 未知孰是. 然醫家皆稱王太僕, 習讀億書也”²¹⁾라 고증하였다. 『소문』을 撰注한 序文에서는 大唐寶應元年(762)으로 署名하였다. 『人物志』에서는 王冰이 “年八十餘, 以壽終”²²⁾이라 하였으나 구체적인 生卒年代는 不詳하다.

“太僕”이라는 관직의 정식 명칭은 “太僕寺”²³⁾이며, 말과 목축 등의 일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醫學이나 文學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周禮』에 의거한 『唐六典』의 官制에 따르면 『周禮·天官』에 기재된 다섯 종류의 醫官²⁴⁾ 가운데 食醫와 獸醫는 天官의 醫官에 속하지 않았고, 獸醫는 殿中省의 “尙乘局”과 東宮官의 “廐牧署” 및 “太僕寺”에 설치되어 있다²⁵⁾. “太僕令”이었던 王을 의학과와 관계를 억지로 연계시키자면 보잘 것 없는 단서이긴 하지만 獸醫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가 『소문』을 편차하고 주석을 달았던 일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林億은 『唐人物志』를 인용하여 “太僕令”이었다고 하였고 『新唐書』의 宰相表에서는 “冰”이 “京兆府參軍”을 지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소문』을 편차하고 주석을 달 인물에 왕빙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왕빙의 이름이 여러 판

본에서 “冰”이 “王冰”、“王砥”、“王砥” 등으로 다르게 쓰여진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하여 多紀元簡과 森立之는 구체적인 書名이나 혹은 引用한 것을 열거하여 검토하였다²⁶⁾. 같은 典籍이더라도 판본에 따라 문자가 다를 수도 있어 왕빙의 이름의 비슷한 부분은 조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王의 생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의 『소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751년에서 762년까지 12년간은 唐代에 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安祿山과 史思明의 叛亂(“安史之亂”)은 755년에 시작하여 763년에 끝났다)이 있었다. 이로부터 唐朝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安史之亂”은 唐代 정치경제의 분수령이 되었다. 전란이 분분했던 이러한 시기에 王冰은 저서에 몰두하였는데 이러한 환경이 그 당시 시대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王冰이 道教을 숭상하고 흥미한 것은 전란으로 고통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세상을 벗어나 無爲로써 정신적인 해탈을 얻고자 한 것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素問序』에서 “冰弱齡慕道, 夙好養生, 幸遇真經, 式爲龜鑑”²⁷⁾이라 하여 王은 黃老의 學에 대하여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乃精勤博訪, 而并有其人, 歷十二年, 方臻理要, 謀詢得失”²⁸⁾하여 『소문』을 찬주하는 작업을 완성하게 되었다. 師承 관계도 매우 깊어 “時於先生郭子齋堂, 受得先師張公非本, 文字昭晰, 義理環周, 一以參詳, 群疑氷釋”²⁹⁾하게 되었다.

王의 학문적인 태도는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였으며 초지일관 노력하여 위대한 업적을 완수하였다. 그는 『내경』의 높은 가치를 인식하였는데 “其文簡, 其意博, 其理奧, 其趣深, 天地之象分, 陰陽之候列, 變化之由表, 死生之兆彰, 不謀而遐邇自同, 勿約而幽明斯契. 稽其言有徵, 驗之事不忒, 誠可謂至道之宗, 奉生之始矣”³⁰⁾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으로 『내경』을 깊이 천착하였으나, 당시에는 善本이 없었고 더군다나 오류가

21) 『欽定四庫全書總目』「子部十三·醫家類一」, 中華書局, 1964, p.856.

22) 前掲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권1 「序」, p.3.

23) 北齊以後

24) 醫師·食醫·疾醫·瘍醫·獸醫

25) 宮下三郎: 『隋唐時代の 醫療』, 『中國中世科學技術史의 研究』, 角川書店, 1963

26) 多紀元簡의 『醫勝』上卷과 森立之의 『素問考注』(國立國會圖書館所藏) 第2補注.

27) 前掲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p.4.

28) 上掲書: p.4.

29) 上掲書: p.4.

30) 上掲書: p.3.

많아 “世本紕繆，篇目重疊，前後不倫，文義懸隔，施行不易，披會亦難。歲月既淹，襲以成弊。或一篇重出，而別立二名；或兩論並吞，而都爲一目，或問答未已，別樹篇題；或脫簡不書，而云世闕；重『合經』而冠『鍼服』，并『方宜』而爲『效篇』，隔『虛實』而爲『逆從』，合『經絡』而爲『論要』，節『皮部』爲『經絡』，退『至教』以『先鍼』，諸如此類，不可勝數”³¹⁾하였다. 그러나 그는 힘써 널리 찾아다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길 12년만에 마침내 “究尾明首，尋註會經，開發童蒙，宣揚至理”³²⁾하게 하였다.

왕의 저서로 알려진 것으로 『玄珠密語』, 『昭明隱旨』, 『元和紀用經』이 있다.

『玄珠密語』에 대하여 『宋史藝文志』에 “王冰『素問六脈玄珠密語』一卷”³³⁾이 실려있고, 『國史經籍志』에는 『素問六氣玄珠密語』 17권³⁴⁾으로 되어 있으며, 『藝文略』에는 10권, 『道藏』에서도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현존하고 있다. 서문에서 왕빙은 則天武后가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道學에 전념하였으며 玄珠子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自號를 啓玄子라 하였다. 훗날 玄珠子가 비밀리에 구술한 말을 모아 『玄珠密語』을 찬하여 “余于百年間，不逢志求之士，亦不敢隱沒聖人之言，遂書五本，藏之五岳深洞中”³⁵⁾하였다. 이 책을 간수할 때 100세가 넘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임억 등이 “詳王氏玄珠，世無傳者. 今有『玄珠』十卷，『昭明隱旨』三卷，蓋後人附托之文也. 雖非王氏之書，亦于『素問』第十九卷至二十二卷，頗有發明”³⁶⁾라 한 바와 같이, 송대에 이미 『玄珠密語』가 偽書임을 알았다. 또한 呂復이 『九靈山房集滄洲翁傳』에서 “余嘗合『素問』觀之，而『密語』所述，乃六氣之說，與高氏所指諸卷全不侔”³⁷⁾라 하였는데, 呂復이 본 것이 임억 등이 본 것이 아니어서 『四庫全書提要』에서 “『玄珠密語』十七卷，舊本題王冰撰……宋人已知其偽，明洪武間，呂復作『群經古方論』云：『密語』所述，乃六氣之說，

與高氏所指諸卷全不侔，則呂復所見者，并非高保衡所見. 且鄭樵『通志略』稱『玄珠密語』十卷，呂復又稱十卷，而此本乃十七卷，則後人更有所附益，又非明初之本矣. 術數家假托古人，往往如是，不足詰也”³⁸⁾라 하였다. 현존하는 『현주밀어』는 왕이 저작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昭明隱旨』 3권에 대해서 『新校正』에서 “『隱旨』三卷，與今世所謂『天元玉冊』者，正相表裏，而與王冰之義多不同”³⁹⁾이라 하였고, 또한 “今世有『素問』亡篇(『刺法論』과 『本病論』을 말함)及『昭明隱旨論』，以謂此三篇，仍託名王冰爲注，辭理鄙陋，無足取者”⁴⁰⁾라 하였다.

『元和紀用經』 1권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程永倍가 『六醴齋叢書』에서 刊印하였고 『宋史藝文志』에 실려 있다. 내용은 方書로 耘苗丹 3방, 上丹, 中丹, 小丹 등이 있다. 『醫籍考』에서 “『元和紀用經』所言，虛夸難信，然檢其文，決非宋以後物，且與陳氏『三因方』所引相合，則要爲古書無疑矣”⁴¹⁾라 하였다.

왕의 일생은 “瞿瞿勤勤，以求明悟”⁴²⁾하였는데 그 이유는 “安不忘危，存不忘亡，求民之瘼，恤民之隱”⁴³⁾과 “君臣無天橫之期，夷夏有延齡之望”⁴⁴⁾함에 목적이 있어 그의 원대한 포부와 고상한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楊과 王에 관하여 불확실한 점이 많고, 기록상 정확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하여 『내경』을 주석한 방법과 내용을 실제로 검토함으로써 밝힐 필요가 있다.

2. 『太素』와 次注 『素問』의 起源과 編次

현존하는 기록으로 볼 때 지금 전해지는 『영추』와 『소문』이 『漢書藝文志·方技略』에 著錄된 古籍인 『黃帝內經』이라는 관점은 西晉의 皇甫謐(215~282)이 제일

31) 上揭書：p.4.

32) 上揭書：p.4.

33) 前揭書：『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p.156.

34) 上揭書：p.264.

35) 啓玄子述：『素問六氣玄珠密語』 『正統道藏』 권36, 法仁文化社, 1987, p.28630.

36) 前揭書：『中國醫籍通考』 권1, p.1453.

37) 上揭書：p.1453.

38) 上揭書：pp.1453~1454.

39) 前揭書：『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王冰序』 권1, p.5.

40) 上揭書：권21, p.1.

41) 前揭書：『中國醫籍考』 권44 『方論』, p.557.

42) 『素問靈蘭秘典論』注

43) 『素問天元紀大論』注

44) 『素問序』, 『素問移精變氣論』注

먼저 제기하였다. 그는 『黃帝三部針灸甲乙經序』에서 “按『七略』, 『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針灸』九卷, 『素問』九卷, 二九十八卷, 卽『內經』也⁴⁵⁾”라 하였다. 그 후 隋人 楊上善이 또한 『영추』와 『소문』의 내용을勒하여 『黃帝內經太素』를 만들었다. 唐代 王冰이 『소문』을 次注할 때 “班固『漢書藝文志』曰 ‘『黃帝內經』十八卷’. 『素問』卽其經之九卷也. 兼『靈樞』九卷, 乃其數焉⁴⁶⁾”이라 하였다. 이 이후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추』와 『소문』을 『黃帝內經』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甲乙經序』에서 皇甫謐이 말한 『영추』와 『소문』이 포함된 『黃帝內經』을 고찰하면 근거로 삼은 『영추』와 『소문』 두 책의 卷數와 『七略』과 『藝文志』에 실린 『黃帝內經』의 卷數와 일치한다. 皇甫謐은 이 앞뒤의 史載 書目에서 어떠한 傍證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들 사이를 연계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皇甫謐이 말한 『영추』와 『소문』이 바로 『藝文志』에 실린 『黃帝內經』이라는 논법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甲乙經序』에서 말한 “按『七略』, 『藝文志』⁴⁷⁾가 皇甫謐이 직접 보았던 『七略』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七略』에 있는 것이 『黃帝內經』의 내용과 유관하다는 말과는 다르다. 『藝文志』는 『七略』을 底本으로 하여 개편된 것이고 『七略』 七卷은 또한 『別錄』 二十卷本을 줄여서 만들었다. 그러나 『七略』에는 『黃帝內經』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만일 있었다면 皇甫謐이 무엇 때문에 더욱 정확한 증거인 『영추』와 『소문』이 곧 『黃帝內經』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卷數가 相合한다는 것으로 유일한 근거로 삼았을까? 皇甫謐은 “『黃帝內經』十八卷”이라는 卷數에 의거하여 『黃帝內經』에 『영추』와 『소문』이 포함된다고 확신하였다.

『漢志方技略』의 “『黃帝內經』十八卷”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黃帝內經』十八卷”에서 卷 속에 篇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一百六十二篇이 있었다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 “『黃帝內經』十八卷”은 실제로 『黃帝內經』十八篇으로 篇卷이 相同하여 篇을 다시 篇으로 나눌 수 없다.

十八篇本の 『黃帝內經』이 오늘날 각 九卷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九卷 또한 八十一篇本の 『영추』와 『소문』 두 책이 있기 때문이다.

『說文解字』에서 “篇, 書也⁴⁸⁾”라 하였고 淸人 段玉裁는 “書, 箸也. 箸於簡牘者也, 亦謂之篇. 古曰篇, 漢人亦曰卷. 卷者, 兼帛可捲也⁴⁹⁾”라注하였다. 『藝文志』는 東漢人 班固가 撰하였다. 그러므로 『方技略』의 “『黃帝內經』十八卷”은 『黃帝內經』十八篇일 가능성이 있다. 漢代의 “卷”은 比단에 글을 쓴 두루말이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의 많고 적음으로 표준을 삼지는 아니하였다. 漢代에 “卷”과 “篇”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卷” 속에서 “篇”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西晉 이후의 “卷”은 “冊”의 意義에 상당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한 “篇”을 나누었다. 漢代에 “篇”과 “卷”의 구별은 比단에 쓴 것을 “卷”이라 하였고 竹木簡牘에 쓴 것을 “篇”이라 하였다. 때로는 일률적으로 “卷” 혹은 “篇”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견해는 『藝文志』에서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藝文志』에서 “凡六藝一百三十一家, 三千一百二十二篇; 凡諸子八十九家, 四千三百二十四篇; 凡詩賦百六家, 千三百一十八篇; 凡兵書五十三家, 七百九十篇, 圖四十三卷; 凡數術百九家, 二千五百二十八卷; 凡方技三十六家, 八百六十八卷⁵⁰⁾”이라 하였다. 篇數는 모두 九千五百五十三篇이고 卷數는 모두 三千三百九十六卷이 된다. 班固가 이를 총괄할 때 “大凡書 六略三十八種 五百九十三家 萬三千二百六十九卷”이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계산하면 六百一十四家, 萬二千九百九十篇으로 十八家가 많고 二百七十九篇이 적다. “篇”과 “卷”의 계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藝文志”에서 “篇”과 “卷”의 개념은 완전히 같은 것으로 “篇”이 즉 “卷”이고 “卷” 역시 “篇”이다. 『方技略』에서도 篇과 卷의 개념이 완전히 같다. 『藝文志』에서 房中家의 “容成陰道二十六卷, 務成陰道三十六卷⁵¹⁾” 등과 같이 各家가 모두 “卷”數로 기록되어 있지만 뒷면의 小計에서는 “右房中八家, 百八十六篇⁵²⁾”으로 되어

45) 皇甫謐 著 山東中醫學院校釋: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6.

46) 『素問序』

47) 前揭書: 『針灸甲乙經校釋』, p.16.

48) 許慎: 『說文解字』, 上海古籍出版社, 1981, p.190.

49) 上揭書: p.190.

50) 姚振宗 撰: 『漢書藝文志條理』, 『六略總目』, 『續修四庫全書』, 卷914, 中華書局, 1985, p.117.

51) 上揭書: 『方技略』 卷6, p.117.

있다. 오늘날 八家를 재산하면 百九十一篇으로 五篇이 많다. 그러므로 『方技略』에 실린 『黃帝內經』十八卷 『外經』三十七卷은 실제로 『黃帝內經』十八篇 『外經』三十七篇이라는 견해가 완전히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추』와 『소문』은 東漢 중기에 일부 醫家들이 東漢 이전 어느 시기의 의학문헌을 匯輯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울러 當代의 의학적인 업적과 결합시켜 각각 편찬하게 되었다. 『영추』, 『소문』이 두 의학문헌 匯輯本이 제일 처음 이루어진 選集 작업은 一時에 一人 혹은 數人의 손에 의하여 각각 따로 나왔음이 틀림 없다.

『태소』傳本 系統에 대하여 馬繼興은 『中醫文獻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⁵³⁾.

『태소』는 즉 『黃帝太(泰)素』이고 『黃帝內經太素』의 간칭이며, 가장 오래된 『黃帝內經』 18권의 또 다른 類의 傳本이다. 최초의 명칭은 西漢 『七略諸子略陰陽家』에 이미 "『黃帝太素』二十篇"이라 저록되어 있다. 劉向과 『漢書藝文志』의 注文에 의하면 原書는 戰國時期 韓諸公孫이 저작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黃帝內經』을 최초로 다시 새롭게 분류 개편한 전본이기도 하다. 晁補之는 20편으로 되어 있고 매편마다 하나의 편목이 있는데 실제로는 簡帛醫籍의 내용을 20類로 나눈 것이다. 이 이후에 의가들이 초록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秦代 醫家가 秦始皇을 避諱하여 문자를 고친 것(『태소』 권14 楊注에서 "[眞臟] 古本有作'正臟' 當是秦始皇名'正' [政] 故改爲'眞'耳")과 前漢 劉向 등이 圖籍을 校錄하여 정리한 것이다. 唐代 초기에 唐 정부는 양상선을 앞세워 古代醫書를 교정하고 정리하였는데, 그 가운데 『태소』와 『明堂經』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楊氏는 원래 20편이었던 『태소』를 기초로 30권으로 새롭게 확충하였는데, 권마다 약간의 편을 세분하여 따로 篇目을 만든 것 이외에 각권의 첫머리에 원래 20편의 편목을 두고 또한 注文을 달았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태소』와 『황제내경』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보면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더욱 깊이 연구하여 밝혀야 할 부분이다.

北宋 정부가 1057년(嘉祐2년)에 『태소』를 포함하여 8부의 古醫書(나머지 『神農本草』, 『靈樞』, 『甲乙經』, 『素問』, 『廣濟方』, 『千金方』 및 『外臺秘要』임)를 교정하고자 준비하였다(『嘉祐補註本草奏勅』 — 『政和本草』 권30 뒤에 附記되어 있음). 이후 나머지 책은 대부분 교정하여 付梓하였으나 『태소』와 『영추』가 정식으로 교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물이나 일문도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林億 등이 『소문』과 『甲乙經』을 校注할 때 『태소』의 원문과 楊氏의 주석을 인용한 바가 있다.

일본 학자인 矢數와 石原은 『태소』를 『황제내경』의 眞本이라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태소』를 『소문』과 『靈樞』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태소』의 내용은 「運氣七篇」을 제외한 현재 판본인 『소문』과 『영추』를 합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黃帝內經』과 『黃帝泰素』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⁵⁴⁾.

『태소』와 『소문』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태소』는 과연 楊上善이 편찬하고 주석을 달았는가 아니면 그는 단순한 주석만을 단 것일까라는 문제의 관건은 『태소』에 서문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신교정』 『소문·서』에서는 "隋楊上善纂而爲『太素』"⁵⁵⁾라 하여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판본을 모아 校勘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古今醫統大全·歷世聖賢名醫姓氏』에서도 "양상선이 『내경』을 기술하고 『태소』를 만들었다"⁵⁶⁾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楊上善이 『내경』을 분류하지 않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태소』의 원문에 주석만 달았다는 주장도 있다. 石原은 『태소』 매권 첫 머리에 표제를 달고 그

54) 『태소』는 天人合一과 陰陽을 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陰陽家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인체에 관계된 내용이 많아 後世 醫家들의 醫經班列에 넣어 것이라고 石原은 말한다. 더욱이 舊鈔本인 『태소』의 첫머리 아래에 傍書하고 있는 篇名이 20여개가 있으니, 이는 『漢書藝文志』에서 『黃帝泰素』 20편에 상응되는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태소』가 『黃帝泰素』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醫書에서가 아니라 『黃帝內經』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근거는 어디 한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55) 前掲書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序」, p.1.

56) 前掲書 : 『古今醫統大全』 「歷世聖賢名醫姓氏」, p.22.

52) 上掲書 : 『方技略』 권6, p.118.

53) 馬繼興 :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85.

아래에 “奉敕撰注”라 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勅命을 받아 撰注한 『明堂』의 서문을 예를 들었다. 그러나 石原의 주장과는 별도로 주목해야 할 것은 楊의 注文을 살펴보면 “有本……爲~” 또는 “一本~爲……”라 하여 字句의 異同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소문』과 『九卷』과의 異同에 대하여 書名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楊의 시대에 『태소』의 異本이 몇 개인이 존재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의 책을 선택하여 주석을 달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시에 처음부터 楊이 본문을 개편하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 밝힌 바와 같이 楊은 분명 잘못된 원문이라고 판단하는 곳에는 원문 아래에 충실히 주석을 달아 놓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분류학적인 입장에서 『태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분류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과학 이론이 분류 연구를 통하여 총결된다. 동양의학의 수많은 이론도 『황제내경』의 분류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발전하였다. 『태소』는 『황제내경』을 연구한 최초의 저작이다. 동양의학 이론의 근원이 되는 『내경』은 卷帙이 浩繁하여 의학이론과 임상적인 경험을 滙集하였을 뿐 아니라 天文, 曆法, 氣象 등 각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술 방식이 종합적이어서 거의 매편마다 전개한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동시에 몇 가지 다른 내용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張介賓은 『類經·序』에서 “經文興衍, 研閱誠難……有互見深藏, 而不便檢閱者”⁵⁷⁾라 하였다. 각기 다른 내용을 정리하여 분류하기만 해도 『내경』의 이론이 한층 계통적이고 조리적으로 분명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楊은 황보밀의 『침구잡을경』에 영향을 받아 『태소』를 편찬하게 되었다. 『소문』과 『영추』의 내용을 전부 割裂하여 성질의 특성에 따라 攝生、陰陽、人合、臟腑、經脈、腧穴、營衛氣、身度、診候、証候、設方、(缺佚不詳)、九鍼、補養、傷寒、寒熱、邪論、風論、氣論、雜病 등 20類로 분류하였다. 각 類마다 다시 子目을 두고 30권으로 만들어 經旨에 어긋나지 않게 하였다. 黃以周는 『徽季文鈔·舊鈔太素經校本敘』에서 “『太素』改編經文 各歸其類 取法于皇甫謐之『甲乙經』而無其破碎大義之失”이라 하였다. 『태소』는 비교적 계

통적으로 『내경』의 학술사상과 의학적인 업적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내경』 원문에는 腧穴學 이론과 경험 및 학문적인 업적이 주로 『소문』과 『영추』에 10여 편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자료가 번거롭게 흩어져 있어 고대 腧穴學 이론의 전모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다. 楊은 이러한 것을 『태소』 「腧穴」篇에 전부 집중시켜 주석을 달아 고대 腧穴學의 업적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후학들의 학습과 연구 및 임상응용에 편하게 하였다. 『태소』 「診候」篇에는 『소문』의 「三部九候論」、 「玉機眞藏論」、 「脈要精微論」、 「宣明五氣篇」、 「五藏別論」、 「五臟生成篇」、 「玉版論要篇」、 「移精變氣論」、 「病能論」、 「六節藏象論」과 『영추』의 「禁服篇」、 「五色篇」、 「根結篇」、 「終始篇」、 「論疾診尺篇」、 「邪氣藏府病形篇」 등 16편에서 진단학의 이론 및 경험과 관련된 것을 수록하여 고대 진단학의 학술적인 업적을 반영시켜 진단학의 이론과 경험을 발전시켰다.

楊의 大綱 분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뿐 아니라 子目的 분류도 질서 있게 정리하였다. 예를 들면 『태소』 「傷寒」篇에서 먼저 「熱病訣」을 두고 “熱病者, 皆傷寒之類也”⁵⁸⁾라 하여 상한병의 총강을 논하고, 그 다음 「熱病說」에서 열병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증후를 논하였는데, 여기에는 溫病, 風厥, 勞風 등 열병환자의 임상적인 표현과 예후 및 치료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뒤이어 「五臟熱病」과 「五臟痿」 등에는 五臟熱病과 痿病의 임상 표현과 치료 및 예후 등을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瘡疾을 논술하였다. 이와 같이 綱을 세우고 그 아래 目을 두었으며 目에서 다시 상세히 논술하였다. 이와 같은 編排分類를 통하여 『내경』의 내용을 집중시켜 조리 있게 하였다. 따라서 丹波元胤은 “今睹其體例, 取『素問』『靈樞』之文, 錯綜以致注解者. 後世有二經分類之書, 上善實爲之唱首”⁵⁹⁾라 하였다.

王冰은 全元起의 『素問訓解』에 매우 불만을 품었는데 『素問·序』에서 全本에 대해 비평을 하였다. 즉 “世本統緒, 篇目重疊, 前後不倫, 文義懸隔, 施行不易, 披會亦難. 歲月既淹, 襲以成弊. 或一篇重出, 而別立二名; 或兩論並吞, 而都爲一目, 或問答未已, 別樹篇題; 或脫

57) 張介賓 : 『類經』 「原序」, 成輔社, 1982, p.6.

58) 前掲書 : 漸西村舍 寫本 『黃帝內經太素』 「熱病訣」 卷25, 中國書店出版, 1994, p.1.

59) 前掲書 : 『中國醫籍考』 卷6 「醫經」, p.49.

簡不書，而云世闕；重『合經』，而冠『鍼服』，併『方宜』而爲『效篇』，隔『虛實』而爲『逆從』，合『經絡』而爲『論要』，節『皮部』爲『經絡』，退『至教』以『先鍼』，諸如此類，不可勝數⁶⁰⁾라 하였다. 그가 말한 “世本”인全本에는 열 가지 구체적인 착오가 있다고 하였다. 王이 “篇目重疊，前後不倫，文義懸隔，施行不易⁶¹⁾”한 傳世本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는 고심 끝에 마침내 다시 새롭게 편차하여 주석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次注”의 의미이다. 따라서 그는 “且將升坐嶽，非徑奚爲，欲旨扶桑，無舟莫適⁶²⁾”라 하였고, “周有秦公，漢有淳于公，魏有張公華公⁶³⁾과 같은 “命世奇傑⁶⁴⁾이 나타나려면 좋은 『소문』 전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결심을 내리자 그는 곧 “乃精勤博訪，而并有其人。歷十二年，方臻理要⁶⁵⁾”하게 되었다. 즉 12년만에 비로소 次注의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이다. 12년 동안의 노력이 “精勤博訪” 네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 王은 『소문』을 次注할 당시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其中簡脫文斷，義不相接者，搜求經論所有，遷移以補其處⁶⁶⁾”하였는데 이 말은 “遷移補闕”로 개괄된다. 簡脫로 인하여 文義가 서로 연관되지 않은 句와 段을 王은 全書를 통하여 관련된 문구를 수집하여 이를 옮겨 脫漏를 보충하였다. “簡脫”의 예는 「五運行大論」, “其德爲寒，其用爲□⁶⁷⁾”，“其政爲靜，其令□□⁶⁸⁾과 같은 것인데, 王注에서 “本闕”이라 하여 그가 근거한 底本에는 3글자가 탈락되어 있었다. “文斷”은 예를 들면 「評熱病論」, “虛不當刺，不當刺而刺，後五日其氣必至。帝曰：其至何如? 岐伯曰：至必少氣時熱，時熱從胸背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小便黃，目下腫⁶⁹⁾” 등과 같은 것이다. 아래에 岐伯이 답하는 말이 있다. 岐伯은 “小便黃”과 “目下腫”의 원인을 해석하여 “小便黃者，少腹

中熱也。不能正偃者，胃中不和也。正偃則咳甚，上迫肺也。諸有水氣者，微腫先見於目下也。”⁷⁰⁾라 하였다. 기백의 대답은 『소문』의 問答體例에 따르자면 마땅히 “熱從胸背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⁷¹⁾”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회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王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考上文所釋之義，未解熱從胸背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之義，應古文簡脫，而此差繆之爾⁷²⁾”라 주석을 달고 판단하였다. “簡脫文斷”된 『소문』의 현상을 근거하여 王은 몇몇 구절과 단락을 비교적 많이 옮겼다. 林億은 全本을 대조하여 대비시켰다고 『新校正』에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玉機眞藏論」의 첫 구절인 “黃帝問曰：春脈如弦，何如而弦?”⁷³⁾에서 “諸眞藏脈見者，皆死不治也。”⁷⁴⁾까지 진 문단은 王이 다른 편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王이 이 문단의 글을 여기에 옮겨 놓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 위 구절에서 “諸眞藏脈見者，皆死不治”라 물었고 아랫 구절은 “黃帝曰：見眞藏脈曰死，何也?”⁷⁵⁾에 이어지게 하여 문장의 흐름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보아 王이 적절하게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林億이 “詳自黃帝問至此一段，全元起本在第四卷「太陰陽明表裏篇」中，王冰移續于此處，必言此者，欲明王氏之功於『素問』多矣!”⁷⁶⁾라 지적하였다. 또한 예를 들면 「刺瘡篇」 “過之則失時也⁷⁷⁾” 구절 아래 임역은 “詳從前瘡脈滿大至此，全元起本在第四卷中，王氏移續于此也⁷⁸⁾”라 하였고, 「大奇論」 “腎肝并沈爲石水，并浮爲風水，并虛爲死，并小弦欲驚⁷⁹⁾” 등 21자는 王이 「厥論」에서 옮겨와 腎脈의 證治를 논술한 속에 넣었다. 임역은 “詳腎肝并沉至下并小弦欲驚，全元起本在『厥論』中，王氏移于此⁸⁰⁾”라 하였다. 때로는 王은 자신의 注에서 옮긴 정황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繆刺論」 “陰中腫，不能內唾，時不能出唾者，刺然骨之前，出血立已，左刺右，右刺左⁸¹⁾”에서 王은

60) 前掲書：『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王冰序」 권1, p.4.

61) 上掲書：「王冰序」 권1, p.4.

62) 上掲書：「王冰序」 권1, p.4.

63) 上掲書：「王冰序」 권1, p.3.

64) 上掲書：「王冰序」 권1, p.3.

65) 上掲書：「王冰序」 권1, p.4.

66) 上掲書：「王冰序」 권1, p.4.

67) 上掲書：「五運行大論」 권19, p.15.

68) 上掲書：「五運行大論」 권19, p.16.

69) 上掲書：「評熱病論」 권9, p.10.

70) 上掲書：「評熱病論」 권9, pp.10~11.

71) 上掲書：「評熱病論」 권9, p.11.

72) 上掲書：「評熱病論」 권9, p.11.

73) 上掲書：「玉機眞藏論」 권6, p.1.

74) 上掲書：「玉機眞藏論」 권6, p.7.

75) 上掲書：「玉機眞藏論」 권6, p.7.

76) 上掲書：「玉機眞藏論」 권6, p.8.

77) 上掲書：「刺瘡論」 권10, p.9.

78) 上掲書：「刺瘡論」 권10, p.9.

79) 上掲書：「大奇論」 권13, p.7.

80) 上掲書：「大奇論」 권13, p.7.

“此二十九字，本錯簡在邪客手足少陰，太陰足陽明之絡前，今遷于此”⁸²⁾라 하였다. 「陰陽應象大論」의 “帝曰：余聞上古聖人，論理人形，列別臟腑，端緒經脈，會通六合，各從其經，氣穴所發，各有處名，谿谷屬骨，皆有所起，分部逆從，各有條理，四時陰陽，盡有經紀，內外之應，皆有表裏，其信然乎?”⁸³⁾에 대하여 임억은 이 문단의 끝에 “詳帝曰至其信然乎，全元起本及『太素』在上古聖人之教也上”⁸⁴⁾이라 주하였다. “上古聖人之教也”는 「上古天真論」에서 나타나는 구절로 이 문단은全本과 『태소』에는 “上古聖人之教也” 위에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王이全本을 변동시킴에 있어서 卷數, 篇次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많이 변동시켰다. 어떤 것은 적절하지만 어떤 것은 합리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王은 「厥論」의 일부를 「大奇論」의 “腎脈小急，肝脈小急”⁸⁵⁾과 “腎脈大急沉，肝脈大急沉”⁸⁶⁾ 사이에 삽입시켰는데 이는 타당하지 못하다. 옮긴 단락이나 구절에 대하여 王은 注로써 밝히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注로 설명한 곳은 소수이다. 林億이全本과 『태소』를 대조하여 王이 옮긴 정황을 지적하여 校注하였으나 단지 주요한 것을 설명하였을 뿐 몇 구 몇 자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주해하지 못하였다.

둘째, “篇目墜缺，指事不明者，量其意趣，加字以昭其義”⁸⁷⁾로 이 단은 “加字昭義”로 개괄된다.全本은 69편으로 王은 여기에서 4편을 뽑았다. 즉 「宣明五氣篇」에서 하나의 큰 문단을 뽑아내어 「血氣形志篇」이라 명명하였다. 임억은 “按全元起本此篇并在前篇，王氏分出爲別篇”⁸⁸⁾이라 하였다. 「刺齊論」의 한 문단을 뽑아내어 「刺要論」이라 명명하였다. 임억은 “按全元起本在第六卷「刺齊」篇中”⁸⁹⁾이라 하였다. 「皮部論」에서 144자를 뽑아 「經絡論」이라 하였다. 임억은 「經絡論」에서 “按全元起本在「皮部論」末，王氏分”⁹⁰⁾이라 하였다.全本의 「四

時病類論」에서 큰 문단을 뽑아내어 「著至教論」이라 명명하였다. 임억은 「著至教論」에서 “按全元起本在「四時病類論」篇末”⁹¹⁾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四時病類論」篇은 이미 王에 의해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 하나는 오늘날 「著至教論」으로 임억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었다. 다른 부분은 오늘날 「陰陽類論」의 후반부로 “雷公復問，黃帝曰：在經論中”⁹²⁾에서 이 편의 끝 부분인 “二陰獨至，期在盛水”⁹³⁾까지이다. 「四時病類論」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억이 「陰陽類論」에서 “按全元起本，自雷公以下，別爲一篇，名「四時病類」”⁹⁴⁾라 하였기 때문이다. 王은 뽑아낸 4편은 원래 독립된 편으로 훗날 “篇目墜缺”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아 다른 편 속에 합병된 이들을 독립된 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王의 이러한 말은 믿을 바가 못된다. 이 이외에 王은全本의 몇몇 편명을 개변시키기도 하였는데 “決死生”을 “三部九候論”으로, “脈要篇”을 “脈要精微論”으로, 「刺禁論」의 일부분을 “寶命全形論”으로, 「經合」을 “離合眞邪論”으로, 「五臟舉痛論」을 “舉痛論”으로, “從容別黑白”을 “示從容論”으로, “方論得失明著”을 “徵四失論”으로, “方解論”을 “解精微論”으로 고쳤다. 개명한 원인은 王의 설에 의하면 원래의 편명이 “指事不明”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王注에서 원문의 文義에 근거하여 加字한 정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陰陽應象大論」 “陽之汗，以天地之雨名之，陽之氣，以天地之疾風名之”⁹⁵⁾에서 “疾風名之” 아래에 王은 “舊經無名之二字，尋前類例，故加之”⁹⁶⁾라 注하였다. 「刺熱論」의 “脾熱病者，先頭重，頰痛，煩心，顏青，欲嘔，身熱”⁹⁷⁾에서 임억은 “按『甲乙經』，『太素』云：脾熱病者，先頭重顏痛，無顏青二字也”⁹⁸⁾라 注하였다. 같은 「刺熱論」의 “與厥陰脈爭見者，死期不過三日，其熱病內連腎，少陽之脈色也”⁹⁹⁾에서 임억은 “舊本無少陽之脈色也六字，乃王氏所添，王注非，當從上善之義”¹⁰⁰⁾라 주해하

81) 上掲書：「繆刺論」권18, p.5.

82) 上掲書：「繆刺論」권18, p.5.

83) 上掲書：「陰陽應象大論」권2, p.4.

84) 上掲書：「陰陽應象大論」권2, p.4.

85) 上掲書：「大奇論」권13, p.7.

86) 上掲書：「大奇論」권13, p.7.

87) 上掲書：「王冰序」권1, pp.4~5.

88) 上掲書：「血氣形志篇」권7, p.11.

89) 上掲書：「刺要論」권14, p.1.

90) 上掲書：「經絡論」권15, p.2.

91) 上掲書：「著至教論」권23, p.1.

92) 上掲書：「陰陽類論」권24, p.4.

93) 上掲書：「陰陽類論」권24, p.5.

94) 上掲書：「陰陽類論」권24, p.4.

95) 上掲書：「陰陽應象大論」권2, p.9.

96) 上掲書：「陰陽應象大論」권2, p.9.

97) 上掲書：「刺熱論」권9, p.4.

98) 上掲書：「刺熱論」권9, p.4.

99) 上掲書：「刺熱論」권9, p.8.

100) 上掲書：「刺熱論」권9, p.8.

었다. 같은 편 “太陽之脈色榮頰前，熱病也。榮未交，日今且得汗，待時而已。與少陰脈爭見者，死期不過三日.”¹⁰¹⁾에 대하여 임억은 “舊本及『甲乙經』，『太素』并無期不過三日五字，此是王氏足成此文也”¹⁰²⁾라 주하였다. 임억이 말한 “舊本”은全本을 가리킨다. 『瘡論』의 “此邪氣客于頭項循膂而下者也”¹⁰³⁾에서 “與邪氣相合 則病作 故”까지 88자도 王이 추가한 것으로 임억은 “按全元起本及『甲乙經』，『太素』自此邪客于頭項至下則病作故，八十八字并無”¹⁰⁴⁾라 하였다. 『咳論』의 “乘秋則肺先受邪，乘春則肝先受之，乘夏則心先受之，乘至陰則脾先受之，乘冬則腎先受之.”¹⁰⁵⁾에서 임억은 “按全元起本及『太素』無乘秋則三字，疑此文誤多也”¹⁰⁶⁾라 하였다. 여기에 배치된 文句에 근거하면 “乘秋則”이 있는 것이 文理나 醫理가 통하며 王이 “量其意趣”하여 추가한 것이다. 『刺腰痛論』의 “腰痛上寒，刺足太陽陽明”¹⁰⁷⁾에서 “引脊內廉，刺足少陰”¹⁰⁸⁾까지 99자도 王이 증보한 것이다. 임억은 “按全元起本及『甲乙經』并『太素』，刺腰痛上寒至此并無，乃王氏所添也”¹⁰⁹⁾라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王이 첨가한 문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가 이러한 글자를 첨가할 때에는 합부로 經文을 개찬하여 진의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다. 王은 학문적인 태도가 엄격하였는데 『素問序』에서 “凡所加字，皆朱書其文，使今古必分，字不雜糅”¹¹⁰⁾라 하여 증보시킨 글자는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원문은 검은 색으로 하여 확연하게 구별하였다.

셋째, “篇論吞并，義不相涉，闕漏名目者，區分事類，別目以冠篇首”¹¹¹⁾로 이 말은 “分篇冠目”으로 개괄할 수 있다. 이 단은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앞에서는 “加字昭義”에 중점을 두었지만 여기에서는 “分篇冠目”에 중점을 두었다. 분편된 정황과 王이 새롭게 만든 편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예를 들

어 설명하였다.

넷째, “君臣請問，禮儀乖失者，考校尊卑，增益以光其意”¹¹²⁾로 이 말은 “尊卑有序”로 개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陰陽別論』의 “黃帝問曰：人有四經十二從，何謂？岐伯對曰：四經應四時，十二從應十二月，十二月應十二經”이 『태소』 권3 『陰陽雜說』에서는 “黃帝問于岐伯曰：人有四經，十二從應十二月，十二月應十二脈”¹¹³⁾으로 되어 있다. 『태소』에서는 황제의 질문만 있고 기백의 답이 없다. 王은 이 문장의 뜻에 근거하여 “何謂？岐伯對曰”¹¹⁴⁾ 6자를 증보시켜 尊卑有序하게 하였고 또한 원문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소문』에서 몇몇 단락은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데 이것도 착간된 것이다. 또한 “問”과 “答”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이러한 단락에 대하여 王은 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석에서 지적하지 않기도 하였다. 『脈要精微論』의 “脈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病之所變奈何，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請問此五者 可得聞乎？岐伯曰：請言其與天運轉大也.”¹¹⁵⁾에서 “문”과 “답”이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 王이 “考校尊卑”의 원칙에 따라 교정하였더라면 이를 찾아내어 황제의 질문에 적절히 상응하는 기백의 회답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착간을 訂正하고 “君臣請問”의 바른 問答에 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王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임억이 이에 대하여 “詳此對與問不甚相應，脈四時動，病之所在，病之所變，按文頗對，病在內在外之說，後文殊不相當”¹¹⁶⁾이라 지적하였다.

다섯째, “錯簡碎文，前後重疊者，詳其指趣，削去繁雜，以存其要”¹¹⁷⁾로 이 뜻은 “削繁存要”로 개괄할 수 있다. 王이 근거한全本은 篇段이 중복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藏氣法時論』은全本의 권1과 권6에 두 번 나타나고, 『離合眞邪論』은 권1과 권2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것을 王은 刪去시켰다. 그러나 중복되는 문장을 산거시켜야 하는데도 산거시키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玉機眞藏論』 “未有臟形，

101) 上揭書：『刺熱論』 권9, p.8.

102) 上揭書：『刺熱論』 권9, p.8.

103) 上揭書：『瘡論』 권10, p.3.

104) 上揭書：『瘡論』 권10, p.3.

105) 上揭書：『咳論』 권10, p.12.

106) 上揭書：『咳論』 권10, p.12.

107) 上揭書：『刺腰痛論』 권11, p.11.

108) 上揭書：『刺腰痛論』 권11, p.12.

109) 上揭書：『刺腰痛論』 권11, p.12.

110) 上揭書：『王冰序』, p.5.

111) 上揭書：『王冰序』, p.5.

112) 上揭書：『王冰序』, p.5.

113) 前揭書：『黃帝內經太素』 『陰陽雜說』 권3, p.18.

114) 前揭書：『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刺腰痛論』 권2, p.13.

115) 上揭書：『脈要精微論』 권5, p.3.

116) 上揭書：『脈要精微論』 권5, p.3.

117) 上揭書：『王冰序』, p.5.

于春夏而脈沉澁”¹¹⁸⁾에서 “皆難治”¹¹⁹⁾까지 53자는 「平人氣象論」의 문자와 서로 중복되어 있지만 王은 두 곳에서 그냥 두고 주석도 다르게 하였다. 임억은 “自未有臟形春夏至此, 與「平人氣象論」相重”¹²⁰⁾이라 하였다. 「刺熱篇」의 “諸當汗者, 至其所勝日, 汗大出也”¹²¹⁾에서 王은 “王則勝邪, 故各當其王日汗”¹²²⁾이라 주해하였다. 이상한 것은 이 구절 아래에서도 “諸汗者, 至其所勝日汗出也”¹²³⁾가 나타나는데, 王의 주석은 다음 구절과 같이 順文敷衍하였다. 따라서 임억은 “按此條文, 注二十四字 與前文重複, 當從刪去「甲乙經」, 「太素」亦不重出”¹²⁴⁾이라 지적하였다. 「刺癰篇」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 “癰脈滿大, 急刺背俞, 用中針傍伍肱俞各一, 適肥瘦出其血也”¹²⁵⁾가 중복되어 있다. 임억은 “詳此條從癰脈滿大至此注終文注, 共五十五字, 當從刪削, 經文與次前經文重複, 王氏隨而注之, 別無義例, 不若士安之精審不復出也”¹²⁶⁾라 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王이 『소문』을 다시 새롭게 편찬한 다섯 가지 원칙이고, 卷篇의 次序를 다시 새롭게 編排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였다. 또한 王은 底本으로 삼은 全本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편찬 작업을 할 때 이 원칙에 입각하였고, 그 가운데에는 잘못이나 예에 어긋나는 곳도 없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王의 개편을 거친 『소문』은 또한 이미 유실된 제7권을 증보하여 24권 81편으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소문』의 典範이 되었다. 王은 서문에서 이를 기술하였는데 몇 가지 고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王이 증보한 제7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七篇에 대해서는 임억 등이 『소문』을 교감할 때 이미 고증하여 평가하였다. 『소문』의 流傳史에 있어서나, 문자의 풍격이나 사상 내용상으로 볼 때 제7권의 抄本대론은 나머지 諸篇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문』의 원서가 아님이 확실하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경시해서

는 안된다. 이는 漢代로부터 유전된 고대 醫經임이 틀림없으며 『傷寒論』에서 언급한 「陰陽大論」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왜 81편으로 나누었으며 현존하는 『소문』이 과연 81편이었을까? 王이 『소문』을 81편으로 나눈 것은 老子的 『道德經』과 『難經』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九”를 數의 極과 道의 極으로 보았고, $9 \times 9 = 81$ 또한 道의 최고 경계로 보았다. 따라서 노자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고, 『난경』도 81편으로 되어 있다. 丹波元簡의 『素問識素問解題』에서 “改易篇目叙次, 共二十四卷, 以爲八十一篇, 蓋坊「道德經」, 「難經」也”¹²⁷⁾라 한 것은 일리가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소문』은 81편으로 되어 있지만 79편만 남아 있고 72편과 73편이 결락되어 있다. 「病能論」에서 王은 “尋前後經文, 悉不與此篇義相接, 似今數句少成文義者, 終是別釋經文. 世本既闕第七二篇, 應彼闕經錯簡文也. 古文斷裂, 繆續于此”¹²⁸⁾라 주석하였다. “世本既闕第七二篇”¹²⁹⁾에서 王의 『素問序』에 의하면 “世本”은 “全本”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으며, 全本에 이미 이 두 편이 결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두 편은 “全元起” 시대에 단지 목록만 남아 있었는데 즉 「刺法論」과 「本病論」이다. 임억이 “六元正紀大論”의 標題 아래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林億 注) 詳此二篇(「刺法論」, 「本病論」) 亡在王冰之前. 按「病能論」篇末王冰注云: ‘世本既闕第七二篇’ 謂此二篇也. 而今世有『素問亡篇』及『昭明隱旨論』以謂此三篇 仍托名王冰之注 辭理鄙俚 無足取者. 舊本此篇名在「六元正紀篇」後列之 爲後人移于此. 若以『尚書』亡篇之名皆在前篇之末 則舊本爲得.¹³⁰⁾

3. 『太素』와 『素問』의 編排

楊注에서 인용한 『소문』은 시대적으로 보면 齊梁 사

118) 上揭書: 「玉機眞藏論」 권6, p.8.

119) 上揭書: 「玉機眞藏論」 권6, p.8.

120) 上揭書: 「玉機眞藏論」 권6, p.8.

121) 上揭書: 「刺熱論」 권9, p.5.

122) 上揭書: 「刺熱論」 권9, p.5.

123) 上揭書: 「刺熱論」 권9, p.5.

124) 上揭書: 「刺熱論」 권9, p.5.

125) 上揭書: 「刺癰論」 권10, p.8.

126) 上揭書: 「刺癰論」 권10, p.9.

127) 丹波元簡: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0.

128) 前揭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病能篇」 권13, p.3.

129) 上揭書: 「病能篇」 권13, p.3.

130) 上揭書: 「六元正紀大論」 권21, p.1.

이의 전원이기 撰注한 『全本』 9卷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일찍이 소실되어 전해지지는 않고, 다만 王의 『소문』 24卷과는 편차의 체계를 달리하고 篇名도 몇 개가 다르다는 것을 『신교정』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소문-서』에 의하면 당시 王은 흩어졌던 원본의 正文을 보완하여 각 편을 分合하고 順次를 바꾸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락된 제7권은 先師 郭子齋 堂에서 秘本을 얻어 보충하고 王이 새롭게 첨가한 부분은 朱字로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王에 의해 『소문』은 옛 판본의 모습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補入한 부분인 「運氣七篇」은 「내경」의 위작으로서 후세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소문』이 본문에서 改竄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

도인지는 명확치 않다.

참고로 아래에 『태소』와 『소문』의 편명을 비교하면, 『태소』에는 200편 가까이 나누고 각 편에 이름을 붙였는데 자세히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태소』의 各篇에 상응하는 『소문』의 篇名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전원기본도 같이 비교하였다(『영추』와의 대비는 생략한다).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 第一		
上古天真論第1	권2 壽限篇(『靈·54』 일부)	제9권
四氣調神大論第2	全 권2 順養篇(『靈·29,78』 일부)	제9권
生氣通天論第3	全 권3 調陰陽篇	제4권
金匱真言論第4	全 권3 陰陽雜說(『素·7,43』 일부)	제4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 第一		
陰陽應象大論第5	全 권3 陰陽大論, 권30 四時之變篇(『靈·74』 일부)	제9권
陰陽離合論第6	全 권5 陰陽合(『靈·40,5』 일부)	제3권
陰陽別論第7	全 권3 陰陽雜說(『素·4,43』 일부)	제4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 第三		
靈蘭秘典第8	佚	제3권(『十二藏相使』)
六節藏象論第9	권14 人迎脈口診(일부)	제3권(일부)
五藏生成論第10	권15 色脈診(『素·15,13』 일부), 제17 卷 首缺(『靈·74』 일부)	제9권
五藏別論第11	全 권15 藏府氣液(『靈·樞·脈·皮』, 『素問·宣明五氣』, 『陰陽別論』, 『太陰陽明論』, 『玉機真藏論』), 권14 人迎脈口診(『靈·樞·禁服』, 『五色』, 『根結』, 『終始』, 『素問·六節藏象論』, 『病能論』 일부)	제5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 第四		
異法方宜論第12	全 제19 知方地篇	제9권(『咳論』)
移精變氣論第13	全 제15 色脈診篇(『素·15,10』 일부), 제19 知祝由篇	제2권
湯液醪醴論第14	全 권19 知古今篇, 제19 知湯藥篇	제5권
玉版論要篇第15	全 권15 色脈診篇(『素·15,13,10』 일부)	제2권
診要經終論第16	佚	제2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五	脈要精微論第17	권14 四時診脈(『素·19, 23』 일부), 권15 五藏脈診篇(『素·23, 18, 48』, 『靈·4』 일부), 권26 癰疽篇(『素·40』, 『靈·80』).	제1권(決死生), 제6권
	平人氣象論第18	全 권15 寸尺診篇, 권15 五藏脈診篇(『素·23, 17, 48』, 『靈·4』 일부)	제1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六	玉機眞藏論第19	권6 藏府氣液篇(『素·23, 7, 29』, 『靈·17』 일부), 권14 四時脈形篇(전문), 권14 眞藏脈形篇(전문), 권14 四時診脈(『素·17, 23』 일부), 권14 卷首缺	제6권
	三部九候論第20	권14 卷首缺(일부)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七	經脈別論第21	全 經脈別論	제4권
	藏氣法時論第22	권2 調食篇(『靈·56, 63, 78』 일부)	제1권, 제6권(일부)
	宣明五氣篇第23	全 권2 順養篇(『素·2』, 『靈·29, 78』 일부), 권2 調食篇(『素·22』, 『靈·17, 56, 63, 78』 일부), 권6 藏府氣液篇(『素·7, 29, 19』, 『靈·17』 일부), 권14 四時診脈(『素·19, 17』 일부), 권15 五藏脈診(『素·18, 17, 48』, 『靈·4』 일부), 권27 邪傳篇(『靈·66』 일부).	제1권
	血氣形志第24	권11 氣穴(『素·58, 60』, 『靈·50』 일부), 권19 知形志所宜(『靈·78, 65』 일부)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八	寶命全形論第25	全 권19 知針石(『素·52, 54, 46』 일부)	
	八正神明論第26	全 권24 天忌, 권24 本神論	제2권
	離合眞邪論第27	全 권24 眞邪補瀉篇	제1권(『經合論』), 제2권(『眞邪論』)
	通評虛實論第28	全 권30 身度, 권30 經絡虛實, 권30 順時, 권30 刺腹滿數(『靈·26』 일부), 권30 刺霍亂數, 권30 刺癰驚數, 권30 刺肢癰數, 권30 病解, 권30 久逆生病, 권30 六府生病, 권30 腸胃生病, 권30 經輸所療.	제4권
	太陰陽明論第29	全 권6 藏府氣液(『素·23, 7, 19』, 『靈·17』 일부)	제4권
	陽明脈解第30	全 권8 陽明脈解	제3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九	熱論第31	全 권25 熱病決, 권30 溫暑病(『素·61』 일부)	제5권(『奇病論』 일부)
	刺熱論第32	全 권25 五藏熱病	제5권
	評熱病論第33	全 권25 熱病說(『靈·23』 일부), 권29 風水論(『素·47』 일부)	제5권
	逆調論第34	全 권28 痺論(『素·43』, 『靈·27, 24』 일부), 권30 熱煩, 권30 肉燂, 권30 臥息喘逆(『素·46』 일부)	제4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	瘧論第35	권25 瘧解(전문), 권25 三瘧(전문).	제5권
	刺瘧篇第36	全 권25 十二瘧, 권30 刺瘧節度(『靈·26』 일부)	제6권
	氣厥論第37	全 권26 寒熱相移(『素·48』 일부).	제9권(『厥論』)
	咳論第38	全 권29 咳論	제9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一	舉痛論第39	全 권2 九氣, 권10 衝脈(『靈·38』 일부), 권27 邪客.	제3권(『五藏舉痛』)
	腹中論第40	권26 癰疽(『素·17』, 『靈·81』 일부), 권29 脹論(『靈·35, 57』 일부), 권30 伏梁病(『素·47』 일부), 권30 血枯(전문).	제5권
	刺腰痛篇第41	권10 陰陽維脈, 권 30 腰痛	제6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二	風論第42	全 권28 諸風數類, 권28 諸風狀論	제9권
	痺論第43	全 권3 陰陽雜說(『素·4, 7』, 일부), 권28 痺論(『素·34』, 『靈·27, 24』, 일부)	제4권(일부), 제8권
	痿論第44	全 권10 帶脈(『靈·11』 일부), 권25 五藏痿	제4권
	厥論第45	全 권26 寒熱厥, 권26 經脈厥(『素·48』 일부)	제5권(일부) 제8권(일부)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三	病能論第46	全 권14 人迎脈口診(『素11, 9』, 『靈5,48,49,9』), 권19 知針石(『素25,52,54』 일부) 권30 臥息喘逆(『素34』 일부), 권30 陽厥, 권30 酒風, 권30 經解.	제5권
	奇病論第47	全 제29 風水論(『素33』 일부), 권30 重身病(전문), 권30 息積病(전문), 권30 伏梁病(『素40』 일부), 권30 脾痺消渴, 권30 臍痺, 권30 頭齒痛(『靈26』 일부), 권30 疹筋, 권30 癰疾(『靈22』 일부), 권30 厥死	제5권
	大奇論第48	全 권15 五藏脈診(『素問·宣明五氣』, 『平人氣象論』, 『脈要精微論』, 『靈樞·邪氣藏府病形』) 권26 經脈厥(『素問·厥論』 일부), 권26 寒熱相移(『素問·氣厥論』 일부).	제5권(일부) 제9권
	脈解篇第49	全 권8 經脈病解	제9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四	刺要論第50	佚	제6권(『刺齊論』)
	刺齊論第51	佚	
	刺禁論第52	권19 知針石(『素問·寶命全形論』, 『鍼解』, 『病能論』 일부)	제6권
	刺志論第53	全 권16 虛實脈診	제6권
	鍼解篇第54	全 권19 知針石(『素問·寶命全形論』, 『刺志論』, 『病能論』 일부)	제6권
	長刺節論第55	全 권23 雜刺(『靈樞·四時氣』)	제3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五	皮部論第56	全 권9 經脈皮部(『素問·經絡論』 일부)	제2권(『皮部論』)
	經絡論第57	全 권9 經脈皮部(『素問·皮部論』 일부)	
	氣穴論第58	全 권11 氣穴(『素問·水熱穴論』, 『血氣形志』, 『靈樞·背腧』 일부)	제2권
	氣府論第59	권11 氣府(전문)	제2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六	骨空論第60	권10 督脈(전문), 권11 骨空(전문), 권26 灸寒熱法(전문)	제2권(일부)
	水熱穴論第61	全 권11 變輸(『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일부), 권11 氣穴(『素問·氣穴論』, 『血氣形志』, 『靈樞·背腧』 일부), 권30 溫暑病(『素問·熱論』 일부).	제8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七	調經論第62	全 권24 虛實補瀉, 권24 虛實所生	제1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八	繆刺論第63	全 권10 陰陽喬脈, 권23 量繆刺	제2권
	四時刺逆從論第64	권16 雜診	제1권(일부), 제6권(일부)
	標本病傳論第65	佚	제2권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十九	天元紀大論第66	無	
	五運行大論第67	無	
	六微旨大論第68	無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二十	氣交變大論第69	無	
	五常政大論第70	無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二十一	六元正紀大論第71	無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二十二	至真要大論第74	無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第二十三	著至教論第75	권16 脈論	제8권(『四時病類論』일부) 제8권(『方盛衰論』일부)
	示從容論第76	全 권16 脈論	제8권(從容別白黑)
	疏五過論第77	佚	제8권(『論過失』)
	徵四失論第78	佚	제8권(『方論得失明著』)

	補注黃帝內經素問	太 素	全元起 注本
卷 第 一 十 四	陰陽類論第79	全 권16 脈論	제8권(『四時病類論』일부) 제8권(일부)
	方盛衰論第80	佚	제8권
	解精微論第81	全 권29 水論(전문)	제8권(『方論解』)

이상에서 『소문』과 『태소』의 章句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첫째, 『소문』과 대조하면 『태소』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全이라 표시하였다)이 48편,不全한 것이 16편, 散佚된 것이 10편(『刺法論』 제72, 『本病論』 제73을 포함하여)으로 모두 74편이다. 칠편대론을 합하면 81편이 된다.

둘째, 『태소』에는 『七篇大論』이 없고, 全元起本에도 이것이 없다. 따라서 『태소』는 全本을 저본으로 삼았고 또한 칠편대론은 『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셋째, 전본이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亡佚되었는데 『태소』와 『소문』에 근거한 新校正을 통하여 全本의 대체적인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넷째, 『刺法論』과 『本病論』은 全本이나 『태소』에는 없다. 『감을경서』에서도 “亦有忘失”¹³¹⁾이라 하여 『七篇大論』과 『刺法論』 및 『本病論』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교정』에서 『소문』과는 다른 全本의 편명을 나타내었지만 그 가운데는 『태소』 편명과 유사한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王注에서 인용한 풍부한 인용 전적에는 『태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王이 『태소』를 근거로 삼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음으로 『태소』와 『소문』이 성서에 있어 어느 것이 앞서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天平元年(729)에 이미 日本에서 『태소』가 의학 교육에 교재로 사용된 것을 보더라도 『태소』가 차주 『소문』보다 오래된 것은 분명하지만, 楊과 王이 본 『소문』 혹은 全本과 『태소』와의 新舊관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판본이 앞서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矢數는 王이 『태소』를 인용해서 차주 『소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¹³²⁾ 이와 같은 추측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山田慶兒는 『황제내경』의 성립에 관한 논문에서 『소문』과 『영추』가 아닌 『태소』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文體와 章(卷)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山田은 “文體는 『태소』가 훨씬 소박하며 章의 구성도 『태소』가 소박하고 경험적이며, 의학 실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소문』과 『영추』는 『태소』에 비하여 더욱 원리적인 관점에서 구성되어있고 이론적인 整合性을 가지고 재구성되어 있다”¹³³⁾는 관점에서 『태소』가 고대 『황제내경』의 원형에 가깝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山田의 설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체의 소박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태소』에 나타난 章의 구성으로 볼 때 『태소』가 『소문』 및 『영추』보다 오래되었고, 古代의 原型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今本 『소문』이 王에 의하여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은 각 편의 순차에 관한 부분이며, 『신교정』에 나타난 全本과 비교하면 兩者의 편차는 크게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篇目이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소』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皇甫謐의 『甲乙經』 또는 張介賓의 『類經』 등과 비슷하다¹³⁴⁾¹³⁵⁾.

만약 『태소』와 같은 醫書가 고대에 저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문』과 『영추』 같은 구성과 내용을 가진 의서가 편찬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楊守敬도 언급하였듯이 “『태소』는 『소문』과 『영추』를 합해져서 현재와 같이 편찬되었다”¹³⁶⁾고 보는 견해가 옳다. 그

132) 矢數 : 『漢方과 漢藥「素問」의 研究』, 6卷 12號, 1939, (前掲書『方證學後世要方釋義』에 收錄)

133) 山田慶兒 : 『思想「黃帝內經」의 成立』, No. 662, 1979年 8月.

134) 前掲書 : 『宋以前醫籍考』, pp.44~45.

135) 清陸心源도 『儀顧堂題跋』에서 『태소』가 『감을경』과 닮았다고 지적하였다.

136) 『日本訪書志』 권9

131) 前掲書 : 『針灸甲乙經校釋』, p.16.

당시 『태소』가 오늘날의 『소문』보다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자는 『태소』를 금본인 『소문』과 『영추』보다 훌륭한 교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태소』야말로 『한서·예문지』에 기재된 『황제내경』이 『황제태소』라는 학설과 『황제태소』로부터 『소문』과 『영추』가 유래되었다는 학설은 근거가 없다¹³⁷⁾. 그러므로 楊씨와 王씨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예비적인 고찰을 토대로 주석 내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楊씨와 王씨의 특색을 본문에서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4. 楊注와 王注의 特徵

楊과 王의 주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두 주석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것은 楊은 전편에 걸쳐 거의 빠짐없이 주석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王씨의 경우는 주석 방법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素問·八正神明論』 第26篇 전반부(『태소』 권24·「天忌篇」)의 원문인 “帝曰：願卒聞之。岐伯曰：凡刺之法，必候日月星辰四時八正之氣，氣定乃刺之”¹³⁸⁾에 관하여 王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注하였다.

(王 注) 候日月者，謂候日之寒溫，月之空滿也。星辰者，謂先知二十八宿之分，應水漏刻者也，略而言之，常以日加之於宿上，則知人氣在太陽否，日行一舍，人氣在三陽與陰分矣。細而言之，從房至畢十四宿，水下五十刻，半日之度也。從昂至心，亦十四宿，水下五十刻，終日之度也。是故從房至畢爲陽，從昂至心者爲陰，陽主晝，陰主夜也。凡日行一舍，故水下三刻與七分刻之四也。……¹³⁹⁾

楊은 이 부분에 관하여 “定者候得天地正氣，日定，定乃刺之”¹⁴⁰⁾라 주석하여 王의 주석에 비하면 너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王은 天文이나 曆象의 분야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지녀 같은 편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긴 주석을 달고 있으며, 또한 「四氣調神大論」에서 四時의 특성을 지적한 부분에서도 時令說을 인용하여 장황하게 주석을 달고 있다. 王의 이러한 주석은 본문과 약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상당히 많은 다른 곳에서 간단한 주석이나 주석을 달지 않는 것과는 불균형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楊의 주석은 실로 간결명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좋은 예로써 주석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항목별 정리 방법이다. 예를 들면 『태소』 28권 「諸風狀診篇」의 원문인 “岐伯曰，肺風之狀，多汗惡風，色皴然白，時欬短氣，晝日則差，暮則甚，診在眉上，其色白”¹⁴¹⁾에 대하여 楊은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楊 注) 肺風病□凡有□□，一曰多汗，二曰惡風，三曰色白，謂面色白薄也，四曰嗽欬，五曰短氣，六曰晝間暮甚，以肺主太陰，故暮甚也。七曰診五色，各見其部薄澤者五藏風之候也¹⁴²⁾。

이와 같이 본문을 항목별로 정리한 주석방법은 王의 주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王의 주석은 너무 간단한 경우가 많고, 楊의 주석은 간결하지만 요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此皆陰陽，表裏，內外，左右，雌雄，上下，相輸應也。故以應天之陰陽也。(『태소』 권3·「陰陽雜說」，『素問·金匱真言論』)

(楊 注) 五臟六腑，則表裏陰陽也。皮膚筋骨，即內外陰陽也。肝肺所主，即左右陰陽也。牝藏牡藏，即雌雄陰陽也。腰上腰下，即上下陰陽也。此五陰陽，氣相輸會，故日合於天也¹⁴³⁾。

(王 注) 以其氣象參合，故能上應於天¹⁴⁴⁾。

137) 丸山敏秋：“黃帝와 醫學—『黃帝內經』의 성립에 관하여”，日本醫史學雜誌 26권 4號，1980.

138) 前掲書：『黃帝內經太素』「天忌篇」 권24，p.1.

139)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p.367.

140) 前掲書：『黃帝內經太素』「天忌篇」 권24，p.1.

141) 上掲書：『諸風狀診篇』 권28，p.4.

142) 上掲書：『諸風狀診篇』 권28，p.4.

143) 上掲書：『陰陽雜說』 권3，p.16.

또한 楊은 편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석에 종종 다른 곳의 본문을 인용하여 畧書를 통하여 비슷한 注文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석의 간결성과는 상반되긴 하지만 결코 부연한 것이 아니며, 『태소』의 經旨에 잘 따르고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소』는 여러 篇目を 적절하게 類別하고, 실용에 적합하게 하였는데 楊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석의 방법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도 다른 곳의 본문을 명시하여 인용하였지만 楊의 배려에는 못 미친다.

또한 하나의 특징은 楊은 난해한 말이나 의미를 잘 못 이해하기 쉬운 것에 대하여 반드시 音釋을 附記하였다는 점이다. 音釋은 대부분 半切을 사용하였고, 하나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표시하는 直音 表記法도 사용하였다. 半切은 어떤 글자의 품에 대하여 다른 두 글자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첫 글자는 聲母를 나타내고 뒷 글자는 韻母를 같이 나타내는 방법이다(예를 들면 𪛗, 他果反). 늦어도 2세기 중반부터 사용된 표기법이다. 전통적인 中國古典의 주석에서 이와 같이 읽기 어려운 문자에 音釋을 붙이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일이지만, 王은 본문의 주석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釋文』 1권만을 두었다.

楊, 王의 注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전체적인 특징은 인용방법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王은 많은 문헌을 인용하였다. 즉 『老子』, 『周易』, 『禮記』를 비롯하여 『靈樞』, 『針經』에 이르기까지 인용한 책의 종류가 많으며, 그 가운데 『遁甲經』과 『古本草』와 같이 오늘날 알 수 없는 書名도 보인다. 이에 비해 楊이 명시하여 인용한 것으로는 『소문』에 해당되는 부분) 玄元皇帝(권23·19), 廣成子(권3), 『山海經』(권19), 神農(권11), 伏羲(권24), 單豹와 張毅(권19)의 古事 등이 있다. 이 밖에 『素問』, 『九卷』, 『明堂』, 『八十一難』은 본문의 校勘에 사용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본문 문자의 異同에 따른 兩注의 차이이다. 『태소』는 『運氣七篇』을 제외한 『소문』과 『영추』를 합친 것과 거의 같지만, 兩者의 原文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석의 내용

도 다른 것이 적지 않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의 내용 검토에서 제시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예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태소』 권3의 『陰陽雜說』과 『素問·金匱真言論』에는 거의 같이 五行에 따른 分類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東方, 木에 속하는 味의 배당에서 『태소』에는 “辛”(『소문』에서는 酸)으로 되어 있고, 西方, 金도 “辛”으로 되어 있어 같은 味가 두 번 기재되어 있다. 원래 동방의 “辛”은 “酸”이 되어야 하며 본문이 잘못되었음이 분명하지만, 楊은 동방의 “辛” 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석하였다.

(楊 注) 肝味正酸, 而言辛者於義不通也. 有云, 金剋木爲妻. 故肝有辛氣¹⁴⁵⁾.

결국 본문에서 “辛”이라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를 잘못이라 하지 않고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같은 곳에서 南方, 火의 味가 “苦酸”(『소문』은 “苦”)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楊은 “酸爲苦母, 并口言之, 故有苦酸¹⁴⁶⁾”이라 주석하여 역시 본문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문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한 楊의 자세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¹⁴⁷⁾. 이러한 점이 다른 주석에 비해 특색이 있다.

5. 理論 展開의 比較

위에서 언급한 전체적 특징에 입각하여, 두 사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검토에 들어가기로 한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陰陽論, 五行論, 四時의 認識 등 의학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본문은 『태소』를 중심으로 채택하였으며 『소문』과 어구나 문자가 다른 것은 ※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판독이

145) 前掲書: 『黃帝內經太素』 『陰陽雜說』 권3, p.17.

146) 上掲書: 『陰陽雜說』 권3, p.17.

147) 『태소』 권14 首篇(篇名未詳)의 “手指及手外踝上五寸, 指間留針”(『素問·三部九候論』에는 “寸”과 “間”字 없다)에서 王은 착간으로 보았지만 楊은 前文과 관련시켜 해석하였다. 『태소』 권19 知針石(『素問·鍼解篇』)의 “九竅……四方各作解”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였다.

144)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63.

어려운 『태소』의 본문과 주는 □로 표기하였다.

1) 陰陽의 大綱

『태소』 권3 「陰陽」(『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오행의 분류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한다)은 음양의 大綱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간결한 문체로 나타난 대강은 유례가 없는 명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仁和寺本 『태소』에는 없으며 福井家에 전해지는 寫本에만 있고 蕭延平 판본에서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① 黃帝問於岐伯曰, 陰陽者天地之道. ※ “道” 아래에 “也”가 있음.

(楊 注) 道者理也. 天地有形之大也. 陰陽者氣之大. 陰陽之氣, 天地之形, 皆得其理以生萬物. 故謂之道也¹⁴⁸⁾.

(王 注) 謂變化生成之道也. 老子曰,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易繫辭傳曰, 一陰一陽之謂道也. 此之謂也¹⁴⁹⁾.

道を 理(도리, 사리)로 해석한 楊은 같은 편 하단의 주에서도 “道理”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¹⁵⁰⁾. “天地有形之大也, 陰陽者氣之大”¹⁵¹⁾는 인용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莊子則陽篇』에 나타나는 말이다. 王注는 간략하며, 두 책의 인용(『老子』 42장과 『周易繫辭傳上』)으로 주석을 대신하고 있다.

② 萬物之綱紀也. ※ “也”가 없음.

(楊 注) 形氣之本, 造化之源, 由於陰陽. 故爲其綱紀¹⁵²⁾.

(王 注) 滋生之用也. 陰與正氣以生, 陰爲之主持以立. 故爲萬物之綱紀也. 「陰陽離合論」曰, 陰與之正, 陰爲之主, 卽謂此也¹⁵³⁾.

148) 篠原孝市 외3人 編著 :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上, 東洋醫學研究會, 1981, p.78.

149) 前掲書 : 『黃帝內經素問校注』, p.72.

150) “故同名異邪”에서 楊은 “道理無物不通, 故同名也. 物有方殊, 故異邪也”라 注하였다.

151) 陳鼓應 注釋 : 『莊子今注今釋』 「則陽篇」, 中華書局, 1991, p.693.

152) 前掲書 :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p.78.

王의 주가 조금 더 상세하지만, 양자 모두 만물을 生成化育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陰陽에서 비롯한다고 이해한 점은 일치한다.

③ 變化之父母也 ※ “也”가 없음

(楊 注) 萬物□生, 忽然而有, 故謂之化也. 化成□已, 故異百端. 謂之變也. 莫不皆以陰陽雌雄, 合成變化, 故曰父¹⁵⁴⁾.

(王 注) 異類之用也. 何者然. 鷹化爲鳩, 田鼠化爲鴽, 腐草化爲螢, 雀入大水爲蛤, 雉入大水爲蜃. 如此皆異類, 因變化而成有¹⁵⁵⁾.

楊注에 “□生”은 “自生”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마지막에 “父”로 끝나고 있지만 “父母(也)”로 되어야 마땅하며 傳抄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王은 변화의 구체적 예를 『禮記』 「月令」 등에 기재된 時令說로 동식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禮記』에서 다소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鷹化……”¹⁵⁶⁾는 仲春, “田鼠化……”¹⁵⁷⁾는 季春, “腐草……”는 季夏¹⁵⁸⁾, “爵入……”¹⁵⁹⁾은 季秋, “雉入……”¹⁶⁰⁾은 孟冬의 계절에 나타나는 자연계의 특징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좋지만 본문의 “變化”를 “異類의 用”에 한정시켜 설명한 것은 약간 편협한 느낌이 들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荒唐無稽한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楊注가 훨씬 思辨의이면서 格調가 있다.

④ 生殺之本始也. ※ “也”가 없음.

(楊 注) 陰爲殺本, 陽爲生始¹⁶¹⁾.

(王 注) 寒暑之用也. 萬物假陽氣溫而生, 因陰氣寒而死. 故知生殺本始, 是陰陽之所運爲也¹⁶²⁾.

153) 前掲書 : 『黃帝內經素問校注』, p.72.

154) 前掲書 :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p.78.

155) 前掲書 : 『黃帝內經素問校注』, p.72.

156) 『禮記』 권6 「月令」 『漢文大系』 권17, 新文豐出版公司, 1978, p.5.

157) 上掲書 : 「月令」, p.8.

158) 上掲書 : 「月令」, p.18.

159) 上掲書 : 「月令」, p.24.

160) 上掲書 : 「月令」, p.27.

161) 前掲書 :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p.78.

162) 前掲書 : 『黃帝內經素問校注』, p.72.

楊注는 너무 간략하고, 王注에서 음양을 “寒暑之用”이라 한 것도 앞의 경우와는 비슷하게 약간 한정적이다. 注文에서 “寒溫之用”이라고 해야 적절하다.

⑤ 神明之府也.

(楊 注) 兩儀之口, 謂之神明. 玄元皇帝曰, 天不觸轉, 日月不觸行, 風不觸火參 雨不觸潤, 誰使之爾 謂之神明. 斯則陰陽之所不測, 化陰陽以爲神, 通窈冥以忘知, 鏡七曜而爲測, 一也. 人法天地具有五臟六腑四肢百體, 中有鑑物之靈, 爲神明, 二也. 亦以陰陽和氣, 故得神而無仞. 故爲府也¹⁶³).

(王 注) 府, 宮府也. 言所以生殺變化之多端者何哉, 以神明居其中也. 下文曰,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故易繫辭傳曰, 陰陽不測. 亦謂居其中也.¹⁶⁴

楊은 “玄元皇帝” 즉 老子의 문구를 인용하였다(이 구절은 今本 『老子』 8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通窈冥以忘知”는 『莊子』에서 주장한 ‘忘我棄知’說과 통하고 “陰陽和氣”에서 ‘和氣’라 한 것도 앞서 王이 인용한 『老子』 42장의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¹⁶⁵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王도 비교적 『老子』를 많이 인용하였는데(특히 「上古天真論」에 많다), 두 사람이 모두 도가사상에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주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뒤에 상세히 논함). “陰陽之所不測”은 王冰도 인용하였는데 『周易·繫辭』에 있으며¹⁶⁶ 두 注에서 같이 인용하였다.

이상은 음양의 大綱을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인 해석에서는 楊王 두 주석이 큰 차이는 없다. 각각 의미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특징을 말하자면 楊注는 思辨의인 경향을 띠면서 격조가 있는 것에 반하여, 王注는 구체성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편협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 점이다. 이어 음양의 성격에 관하여 「음양응상대론」에서 본문이 다름으로 인하여 야기된 주석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163) 前掲書: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pp.78~79.

164)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72.

165) 『老子翼』 권3 「下篇」 『漢文大系』 권9, 新文豐出版公司, 1978, p.12.

166) 成百曉 譯註: 『周易傳義』 「繫辭上傳」, 傳統文化研究會, 1998, p.538. “陰陽不測之謂神”

⑥ 陽生陰長 陰殺陽藏 ※ “陽殺陰藏”으로 되어 있음.

(楊 注) 少陽, 春也. 生起萬物. 少陰秋也. 長熟萬物. 五月是陽, 起一陰多殺氣者也. 十一月冬藏, 起一多生氣者也. 有本云, 陰生陽殺也之¹⁶⁷).

(王 注) 明前天地殺生之殊用也. 神農曰,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¹⁶⁸).

여기에서 음양의 작용이 각기 상이한 성격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 구절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태소』와 『소문』에서 “陰殺陽藏”이 逆轉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문』의 여러 注에서도 이 부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生, 長, 收, 藏에 따른 작용을 陰陽의 개념이나 그 이외의 작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문이 “陽生陽長, 陰殺陰藏”으로 되어 있다면 陰陽論의 이치에 맞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문』에는 “陰藏”과 “陽殺”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注釋者들이 통일된 해석에 고민하였다.

王은 단지 바뀐 본문에 대하여 출전이 불명한 神農의 말을 인용하였을 뿐 어디에도 주해하지 않았다. 『新校正』에서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新校正』에서는 『周易說卦傳』에서 八卦와 方位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말하자면 八卦에서 坤은 陰의 交點에 해당하고, 陽인 乾은 서북에 위치하고 9월과 10월의 交點에 해당한다. 따라서 陽은 收殺을 다스리고 陰은 長養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¹⁶⁹. 多紀元簡도 이 설을 인정하였지만¹⁷⁰ 부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태소』의 경우는 『소문』의 문제와 다르게 본문이 다르고 楊注의 의도도 잘 이해할 수 없다. 楊이 고의로 別本の 다른 본문을 인용한 것을 보면 아마 그 자신이 본문에

167) 前掲書: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 p.79.

168)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73.

169) 前掲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陰陽應象大論」 권2, p.1.

“按周易八卦布四方之義, 則可見矣. 坤者陰也. 位西南隅, 時在六月七月之交, 萬物之所盛長也. 安謂陰無長之理. 乾者陽也. 位成亥之分, 時在九月十月之交, 萬物之所收殺也. 孰謂陽無殺之理. 以是之陰長陽殺之理, 可見矣”

170) 『素問識』 권1: 『皇漢醫學叢書』, 臺灣大通書局, 1975, 제 1책 p.27. 馬蒔는 『新校正』의 해석에 부정적이다(『內經素問註證發微』 권1).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別本の 문구도 『소문』과 다르다.

다음도 『태소』와 『소문』의 본문이 다른 흥미로운 예이다. 인체 음양의 불균형에 따른 병증을 설명한 후에 이 본문이 있다.

⑦ 此陰陽之反祥也. 病之逆順也. ※ “祥也”가 “作”으로 되어 있다.

(楊 注) 祥, 福也. 逆之則爲反, 順之則爲福也¹⁷¹⁾.

(王 注) 反謂反覆. 作謂作務. 反覆作務則病如是¹⁷²⁾.

『소문』에 “祥”이 “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注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森立之는 『千金方』에서 마찬가지로 “祥”으로 되어 있다고¹⁷³⁾ 지적하였다. “祥”은 神이나 하늘이 내리는 福이다. 이를 楊은 “反”에 대대되는 “福”, 즉 음양에 逆하면 질병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음양에 순종하면 無病하고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王은 “反作”을 “反覆作務”라 하였다. 이는 음양이 본래 있어야 하는 위치를 벗어나 계속 작용함을 말한 것이지만, 본문의 逆從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본문은 “祥”이나 “作” 어느 쪽이든 일종의 도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고 있는 楊注가 王注에 비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¹⁷⁴⁾.

2) 五行論의 適用

戰國末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五行論은 漢代에 이르러 성행하였고 이후 陰陽論과 함께 東洋思想의 특징을

이루는 原理로서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五行 즉 木火土金水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원소가 아니고, 사물을 다섯으로 분류하여 상호 연계성을 나타낼 때에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오행으로 사물을 類形的으로 인식하고 諸現象을 설명하는 원리가 오행론이다. 時令說이나 天人相應思想 등과 더불어 각 분야에 적용되었다.

『태소』와 『소문』(『영추』)에 있어서도 오행론은 醫論의 기저를 이루는 원리로 구사되었다. 그러나 음양론보다 복잡한 내용을 가진 오행론은 그 적용이 상당히 어려워, 醫書에서 종종 불완전하게 적용되어 모순이나 혼란이 야기되었다. 여기에서 楊과 王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오행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運氣七篇』을 補入한 王은 운기론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본문의 해석에 오행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는 통설로 되어 있다. 『운기칠편』의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王은 오행론을 많이 응용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석도 종종 나타난다. 楊도 오행론에 입각하여 주석을 하였는데 양자는 때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 예는 『태소』 권2 「調食篇」(『素問藏氣法時論』)에서 오장의 “色”과 “味” 그리고 “味”를 가진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을 나타낸 구절이다.

① 肝色青, 宜食甘. 粳米飯牛肉棗, 皆甘. ※ “飯”字가 없다. “棗” 뒤에 “葵”가 들어 있다.

(楊 注) 肝者木也. 甘者土也. 宜食甘者木剋於土 以所剋資肝也¹⁷⁵⁾.

(王 注) 肝性喜急. 故食甘物而取其寬緩也¹⁷⁶⁾.

② 心色赤, 宜食酸. 犬肉李 皆酸. ※ “小豆犬肉李韭”로 되어 있다.

(楊 注) 心者火也. 酸者木也. 木生心也. 以母資子也¹⁷⁷⁾.

(王 注) 心性喜緩. 故食酸物而取其收斂也¹⁷⁸⁾.

兩者 모두 注가 간결하다. 王注의 내용은 여기에 나

171) 前掲書: 仁和寺本『黃帝內經太素』, p.80.

172)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73.

173) 孫思邈 著, 李景榮 외4人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肺藏脈論第一」 권17,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64.

174) 참고로 諸注를 예를 들면, 張介賓 『類經』에서는 “作 爲也. 順則爲從 反則爲逆. 逆從雖殊 皆有其本 故必求其本而治之”라 하였고, 多紀元簡 『素問識』에서는 “簡案 千金腎門 陰陽翻作. 陽氣內伏陰氣外界 知是反翻也”라 하였으며, 森立之 『素問考注』에서는 “案 半作即交替之謂 即錯之假借 千金作反祥 可以徵也. 此文自一種倒草法 乃謂陰陽逆從反作爲之病也”라 하였다.

175) 前掲書: 『黃帝內經太素』 「調食篇」 권2, p.12.

176)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328.

177) 前掲書: 『黃帝內經太素』 「調食篇」 권2, p.12.

178) 前掲書: 『黃帝內經素問校注』, p.328.

타난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藏氣法時論』에서 “肝苦急，急食甘以緩之”와 “心苦緩，急食酸以收之” 등이 라 한 이후에 이 구절이 이어져 있다. 본문의 “苦”와 王이 注한 “喜”는 뜻이 다르지만, 그가 “苦”를 “喜”로 바꿔 말한 것은 “苦”를 “결핍되어 바라는 상태”로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면 납득할 수 있다. 王은 여기에 오행론으로 주해하였지만, 楊은 ①에서는 相剋論을 ②에서는 母子相生論으로 해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脾와 肺의 경우에는 상극론을 腎에 관해서는 相生論을 사용하였다. 일련의 본문에 다른 두 개의 원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今本 『태소』에는 「藏氣法時論」의 앞부분이 없기 때문에 楊은 위와 같은 五行論으로 주해하였을 것이다.

다음의 것도 楊이 五行을 사용하고, 王은 사용하지 않은 예이다.

③ 魚者使人熱中，鹽者勝血。故其民皆黑色疏理。

(楊 注) 魚性是熱，故食之令人熱中。鹽，水也。血者火也。水以剋火故勝血而人色黑也¹⁷⁹⁾。

(王 注) 魚發瘡，則熱中之信。鹽發渴，則勝血之徵¹⁸⁰⁾。

王注는 지나치게 간결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勝血之徵”이라는 표현(“鹽者勝血”에 대한 해석)은 五行이 상극하는 이치가 의식된 것일는지도 모르지만, 楊注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곳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은 『태소』 권15 「五臟脈診篇」의 첫머리 부근에 있다. 死脈과 계절과의 관계를 기술한 조문이다. 이 부분은 『素問·大奇論』에 나타나며, 본편은 荻生徂來가 『소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간주한 편이다¹⁸¹⁾. 王의 注는 간결하지만, 楊은 五行相剋論을 억지로 인용하여 주석하였다.

④ 脈至如火新燃。是心精之予奪也。草乾死。※“燃”은 “然”으로 되어 있다. “乾”과 “死” 사이에 “而”字가 있다.

(楊 注) 心脈如鉤。今如火新燃。是心脈急疾，火精奪。故至草乾水時，被剋而死¹⁸²⁾。

(王 注) 薪然之火燄瞥瞥，不定其形。而便絕也¹⁸³⁾。

이 條文에는 죽음에 이르는 13종의 脈狀이 기술되어 있고, 그 가운데 11종은 죽는 계절을 명시하였다. 계절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으로는 春夏秋冬 四時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예(立春과 季秋)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草乾”，“木葉落”，“下霜”，“水凝” 등 구체적으로 자연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王注에서는 계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楊은 이러한 계절이 四時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추적하여 五行相剋論으로 죽음을 이르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草乾하는 시기를 水의 時 즉 겨울로 간주하고 水剋火의 이론으로 그 시기에 죽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원래 오행론을 기초하여 기술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행론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정연성이 결핍되어 있다.

⑤ 脈至如懸雍。懸雍者，浮揣切之益大，十二經之予不足也……水凝而死亟。

(楊 注) 浮實切之益大。此是懸離之狀，懸離脈見，即五臟六腑十二經輸氣皆不定。十二經輸皆屬太陽。故至水凍冬時而死¹⁸⁴⁾。

앞의 경우에는 心(心脈)을 火와 연계시켰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였지만 여기에서는 十二經을 五行에 배속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다. 상극이론에서 “水剋火”하기 때문에 十二經은 火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太陽을 火로 배당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아마 十二經가 太陽膀胱經에 속하며 肺에서 膀胱에 이르는 十二經輸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상은 王이 五行論을 응용한 것에 楊이 응용한 경우였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물론 적지 않다.

182) 前掲書：『黃帝內經太素』「五臟脈診篇」 권15, p.27.

183)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617.

184) 前掲書：『黃帝內經太素』「五臟脈診篇」 권15, p.38.

179) 前掲書：『黃帝內經太素』「調食篇」 권2, p.3.

180)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173.

181) 『徂來先生素問評』 1766年刊

⑥ 岐伯曰：怒則氣逆，甚則吐血，及食而氣逆上也。
(『태소』 권2 「九氣篇」, 『素問·舉痛論』) ※ “嘔血及飧泄，故氣上矣”로 되어 있다)

(楊 注) 因引氣而上，故氣逆。怒甚氣逆則致吐血及食氣逆上也。¹⁸⁵⁾

(王 注) 怒則陽氣逆而上而肝氣乘脾，故甚則嘔血及飧泄也。何以明其然，怒則面赤，甚則色蒼。¹⁸⁶⁾

楊注는 그냥 본문을 敷衍하였을 뿐이다. 王은 怒가 심하면 안색이 창백(木)해져 脾(土)를 해친다(木剋土)고 해석하였다. 본문에서 이 문단의 아래에 喜、悲、恐 등 정신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王은 오행론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구절의 경우는 매우 異例인 것이지만, 오행상극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그밖에 『素問·金匱真言論』에서 오행론을 기초하여 상세히 분류(『태소』 권3 「陰陽雜說」) 하였는데, 王은 그렇게 분류된 가담에 대하여 집요하게 注를 다는 등 유사한 예가 많지만 여기에서 일일이 例示하는 것은 생략한다. 말하자면 두 사람의 注에서 五行論(특히 相剋論)을 적용시킨 방법은 다르지만 王은 자주 응용하지 않았으나, 楊은 經文의 해석에 五行論을 상당히 많이 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문자 차이에 따라 두 사람이 오행론의 적용을 달리한 예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⑦ 是故味過酸，肝氣以津，肺氣乃絕……

이는 『태소』 권3 「調陰陽篇」에 기재된 것으로 같은 것이 『素問·生氣通天論』에는 “肺氣”가 “脾氣”로 되어 있다(또한 “過”와 “酸” 사이에 “於”字가 있다). 두 사람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楊 注) ……肺氣剋肝，今肝氣津洩，則肺無所剋，故肺氣無用也¹⁸⁷⁾.

(王 注) 酸多食之，令人癰，小便不利則肝多津液，津液內溢則肝葉舉，肝葉舉則脾經之氣絕而不行，何者木剋土也¹⁸⁸⁾.

이는 五味의 過食에 따른 病証을 기술한 것으로, 本文에 『태소』와 『소문』 사이에 字句의 異同이 많다. 『소문』의 경우 王과 같이 오행상극론으로 해석 할 수 있지만 『태소』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위에 나타난 楊注에서 相剋論이 사용되긴 하였으나 해석상 매우 곤란한 점이 노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에 빠져버리는 예는 『소문』의 경우에도 많아 經典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 있다.

3) 四時의 認識과 養生

『태소』와 『소문』, 『영추』의 특징에 있어서 하나는 자연계와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침투되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자연계의 만물과 인체를 數的 혹은 形象的으로 類比시켜 설명하고 있다. 자의적인 면도 있지만, 인체의 생리, 병리와 四時의 推移에 따른 영향은 동양의학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四時의 인식은 질병을 미연에 막는 예방의학으로서의 養生說과도 깊이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태소』 권2 「順養篇」에 나타나는 四時에 따른 養生法이다(『素問·四氣調神大論』이다). 春을 예를 들어 楊과 王의 주석을 비교하기로 한다.

① 春三月，此謂發陳，天地俱生，萬物以榮，夜臥早起，廣步於庭，被髮緩形，以使志生，生而勿殺，予而勿奪，賞而勿罰，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

(楊 注) □，舊也。言春三月草木舊根舊子皆發生也。天之父也降之以德，地之母也資之以氣，德之與氣俱能生也。物因德氣英華開發也。春之三月主膽肝之府，是少陽用事，陰消陽息，故養陽者至夜即臥，順陰消也。蚤字古措字，旦而起而順陽息也。廣步於庭，以使志也。被髮緩形，逸以使志也。勞逸處中和而生也。故其和者是內攝生者也。生與賞者順少陽也。殺奪罰者逆少陽也。故順成

185) 前掲書：『黃帝內經太素』「九氣篇」 권2, p.9.

186)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510.

187) 前掲書：『黃帝內經太素』「調陰陽篇」 권3, p.13.

188)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54.

和則外攝生也。內外和順，春之應也。歎之順者爲身爲國養生道也¹⁸⁹⁾。

(王 注) 春陽上升，氣潛發散，生育庶物，陳其姿容。故曰發陳也。所謂春三月者皆因節候而命之。夏秋冬亦然。天氣溫，地氣發，溫發相合，故萬物滋榮。溫氣生，寒氣散。故夜臥早起 廣步於庭。法，象也。春氣發生於萬物之首。故被髮緩形，以使志意發生也。春氣發生，施無求報。故養生者必順於時也。所謂因時之序也。然立春之節，初五日，東風解凍……¹⁹⁰⁾

두 사람의 주석내용이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용어의 해석이나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봄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본문의 '發陳'에 대해서, 楊은 '陳'을 '舊'로 해석하여 '舊를 發한다' 즉 겨울 사이에 잠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뿌리나 싹이 봄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舊也。言春三月草木舊根舊子皆發生也)。이에 대해 王은 '發'과 '陳'이 모두 生育開陳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았다(春陽上升，氣潛發散，生育庶物，陳其姿容。故曰發陳也)。다음으로 天과 地의 작용에 대하여 楊은 天은 '德'으로，地는 '氣'로써 교감작용을 한다고 하여 思辨의(天一形而上，地一形而下)로 인식한(天之父也降之以德，地之母也資之以氣，德之與氣俱能生也) 반면，王은 天氣——溫——生과 地氣——發——散으로 相反、相補하는 天地의 작용을 現象의인 차원에서 인식하였다(天氣溫，地氣發，溫發相合，故萬物滋榮。溫氣生，寒氣散)。

본문에서 "夜臥蚤起……勿罰"이라 한 구체적인 생활태도에 관해서 楊은 陰陽의 消息과 和(中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內、外에 따른 섭생을 구별하여 비교적 쉽게 주석하였다. 王은 "故로"라는 말로 연계시켰는데 앞뒤 문장에 따른 논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東風解凍" 이후는 『月令』에 기재된 봄의 자연현상을 자세히 기술하였다(다른 계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⁹¹⁾. 이는 계절의 해설을 자상하게 소개하였지만, 본문의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王은 관심을 가진 본

야에 대해서는 주석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본문과 遊離된 감이 든다.

동양에서는 고대 이래로 개인적인 心身의 양생을 언급할 때에 이에 상응시켜 治國과 함께 설명하여 "治身"과 "治國"을 같이 거론한 예가 종종 나타난다. 『老子』河上公注 등이 그 典型이라고 말할 수 있다. 楊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문의 "廣步於庭……以使志生"을 개인적인 양생법으로 보았고, "生而勿殺……賞而勿罰"을 爲政者의 외적인 태도로 간주하여 內(爲身)、外(爲國)의 섭생으로 이해한 것이 그것이다. 본편 후반부에는 음양의 交通이 不調로 야기된 自然災害를 기술하였다. 이를 楊은 군주가 德에서 벗어난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災害(災異)로 인식하였다(王은 단순한 自然的인 災害로 보았다). 아마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爲身"과 "爲國"으로 구별하였을 것이다.

上記한 본문에 이어서 양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병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② 逆則傷於肝，夏爲寒爲變，奉生長者少。

(楊 注) 肝氣在春，故晚臥。形晚起，晚體急形。殺奪罰者皆逆少陽也。故其爲身者逆即傷肝，夏爲傷寒熱病變也。其爲國也霜雹風寒災害變也。春時內外傷者奉夏生長之道不足也¹⁹²⁾。

(王 注) 逆謂反行秋令也。肝象木王於春。故行秋令則肝氣傷。夏火王而木廢，故病生於夏。然四時之氣，春生夏長，逆春傷肝，故少氣以奉於夏長之令也¹⁹³⁾。

楊은 前注에 이어 봄에 순응하는 양생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야기되는 "寒"에 의한 장애를 疾病(內——身)과 災異(外——國)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王은 "逆"을 "反行秋令" 즉 봄의 時令에 반하여 가을의 시령을 행한 경우라고 해석하였다. 五行相剋에 기초한 王의 해석(秋——金剋春——木)은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지만, 이 편에서 四時를 記載한 것에서 土에 해당되는 계절은 언급하지 않았다. 후편에 언급한 가을과 겨울의 경우에도 "反行夏令"이라 하여 이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月令』에서도 四時의 특징을 언급한 후에 시령의 違背에 따른 여러 災異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는

189) 前掲書：『黃帝內經太素』「順養篇」권2, p.3.

190)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p.20~21.

191) 『新校正』에서 王注의 「月令」 解説을 자세히 補正하였다. 多紀元簡은 王冰이 인용한 「月令」은 『禮記』月令이 아니고 『唐月令』이라고 지적하였다.(『醫騰』권上:王冰引月令)

192) 前掲書：『黃帝內經太素』「順養篇」권2, p.4.

193)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21.

오행상극을 배려하지 않고, 어느 계절에 다른 세 계절의 시령을 행하였을 경우 일어나는 災異現象을 나타내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을 응용하여 四時의 질병을 설명한 것으로는 「四時刺逆從論」과 「診要經終論」이 있다. 그러나 王이 여기에서 「反行秋令」으로 해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하 夏、秋、冬의 경우도 王注에 時令說이 많이 들어있어, 楊注와 비교하면 恣意的인 편이 눈에 띈다.

위에서 논술한 『태소』 권2 「順養篇」(『素問·四氣調神大論』)의 養生說은 陰陽之氣의 변화에 기초하여 四時에 따른 특징에 순응하는 생활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와 약간 관점을 달리하는 양생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거론하기로 한다.

4) 道家思想의 影響

『태소』와 『소문』은 老莊哲學에 기초한 道家思想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養生에 대해서는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 『素問·上古天真論』(『태소』에서는 제1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缺佚되었다)은 대부분 道家的인 언어로 되어있다. 兩者에는 대부분 전설적인 옛 제왕과 신하인 黃帝와 岐伯 등과의 대화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두 책의 原型이 漢代에 성행한 黃老思想의 영향을 받아 편집된 것으로 생각된다.

道家思想은 唐代에 크다란 영향을 끼쳤다. 王冰은 『素問序』에서 “冰弱齡慕道, 夙好養生, 幸遇真經, 式爲龜鑑”¹⁹⁴⁾이라 하여 도교가 그의 세계관의 핵심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사상의 영향으로 그는 『소문』에서 논술한 養生과 導引의 篇目을 卷首로 옮기고 이 책의 주도의적인 사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上古天真論」과 「四氣調神大論」이 全元起本(이후 『全本』이라 간칭)에서는 권9에 배치되어 있으나 王은 全本이 “前後不倫”¹⁹⁵⁾하다고 하여 마땅히 첫머리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王은 全本을 다시 새롭게 分卷하고 分篇하여 배치를 새롭게 하였는데 내용 방편의 연계를 고려한 것 이외에 도가사상이 양생방편의 작용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에도 유의하여 나타내었다.

도가사상이 卷篇의 排次와 分合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소문』 원문에 대한 王의 이해와 주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학자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각적인 인식 여부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의 거대한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王注에 나타나는 수많은 도가적인 사상관점은 그의 저작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上古天真論」 “昔在黃帝,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徇齊, 長而敦敏, 成而登天”¹⁹⁶⁾의 구절은 『甲乙』, 『太素』, 『全本』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후인들은 이 구절을 王이 『史記·五帝本紀』에서 “黃帝紀”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史記·五帝本紀』 “黃帝者, 少典之子, 姓公孫, 名曰軒轅.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以徇齊, 長而敦敏, 成而聰明”¹⁹⁷⁾과 「上古天真論」의 구절을 서로 비교하면 『史記』에는 “昔在”가 없고 “登天”은 “聰明”으로 되어 있다. 丹波元簡의 『素問識』에서는 “昔在”는 『尚書·堯典』에서 나타나는 “昔在帝堯”를 모방하여 기술한 것이라¹⁹⁸⁾ 하였다. 「上古天真論」 王注를 보면 “(黃帝)有熊國君 少典之子, 姓公孫”¹⁹⁹⁾이라 하였는데 이 주는 출처가 있다. “有熊國君”은 劉宋시대 裴駰의 『史記集解』에서 “譙周曰: 有熊國君, 少典之子也”²⁰⁰⁾에서 인용하였다. “少典之子, 姓公孫”²⁰¹⁾은 「五帝本紀」에서 직접 인용하였다. 왜 이 16자를 증보하였을까? 증보하지 않으면 이 편의 문장의 語氣가 통하지 않는다. 만일 처음부터 갑자기 “乃問于天師曰”이라 한다면 문장의 시작이 어색하고 또한 “乃”字도 없어야 한다. 王이 권9를 권1로 옮길 때 아마 뜻밖에 “乃問于天師曰”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16자를 증보하였을 것이다. 道家는 黃帝、老子、莊子를 스승으로 숭배하였고, 또한 『소문』이 모두 황제와 신하의 問答體이기 때문에 王은 『사기』에서 인용하고 『堯典』의 어법을 모방하여 첫머리 16자를 증보하였다. 또한 王은 「상고천진론」 등 앞 편의 주석에서 『老子』, 『莊子』의 말을 많이 인

196) 上揭書: 「上古天真論」 권1, p.1.

197) 馬持盈 注: 『史記今注』 「五帝本紀」 제1책,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6年, p.2

198) 前揭書: 『素問識』 「上古天真論」, p.5.

199) 前揭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上古天真論」 권1, p.6.

200) 裴駰: 『史記集解』 권1 「五帝本紀」 『文淵閣四庫全書』 권245, 臺灣商務印書館, 1983, p.245*4.

201) 上揭書: 「五帝本紀」, p.245*4.

194) 前揭書: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王冰序」, p.4.

195) 上揭書: 「王冰序」, p.4.

용하였고,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인용한 『장자』 가운데 廣成子、庚桑楚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莊子』에는 우화가 많고 庚桑楚、廣成子 등은 모두 우화 속의 인물이다.

王은 『소문』의 편차를 다시 새롭게 안배하여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生氣通天論」을 제1, 2, 3 편에 두었다. 따라서 양생방면에 대한 『소문』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道家들이 약간의 篇段을 『道藏』에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孫思邈을 托名한 『養性延命錄』에서는 「상고천진론」의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록하였다. 여기의 것과 王本の 「상고천진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王 이후 『소문』이 도가의 색채에 더욱 물들었음을 알 수 있다.

(『養性延命錄』) 黃帝問岐伯曰：余聞上古之人，春秋皆度百歲而動作不衰(原注：「謂血氣猶盛也」)，今時之人，年半百而動作皆衰者，時世異耶，人將失之耶？岐伯問：上古之人，其知道者，法於陰陽，和於術數(原注：「房中交接之法」)，飲食有節，起居有度，不妄作勞，故能形與神俱，盡終其天命，壽過百歲。今時之人不然，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好散其真，不知持滿，不時御神，務快其心，逆於陰陽，生活起居，無節無度，故半百而衰也²⁰²⁾。

道家思想은 『소문』 앞 3편의 편차와 인용한 老莊의 저작에서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타 편의 주석에도 반영되어 있다.

(『疏五過論』)：故事有五過四德，汝知之乎？²⁰³⁾

(王 注) 慎五過，則敬順四時之德氣矣。然德者，道之用，生之主，故不可不敬順也²⁰⁴⁾。

王은 “道”와 “德”을 왕왕 도가사상과 연계시켰는데, 이 주석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四德”의 “德”을 “道”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해석하여 “然德者，道之用，生之主”²⁰⁵⁾라 하였다. 「上古天真論」, 「靈樞

經」, 「生氣通天論」에서 관련된 문자를 인용하여 증명하였지만 王이 “德”을 “道之用”이라 해석하여 대전제로 삼은 것은 착오이다. “五過四德”에서 “德”은 “得”과 통하며 “四得”과 “五過”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태소』 권2 「順養篇」 “若有私意，若已有德”²⁰⁶⁾에서 楊은 “言十一月，陰去陽來，故養陰者，凡有私意，諸有所得，與陰俱去”²⁰⁷⁾라 注하였다. 楊은 바로 “得”으로 “德”을 해석하였다. 「四氣調神大論」과 「諸病源候論」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若已有德”을 모두 “得”이라 하였다. 王이 주에서 범한 이러한 잘못은 假借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도가사상으로 이를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楊注에서도 도가사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태소』 권3 「陰陽」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① (智者察同，愚者察異，愚者不足，智者有餘。有餘則耳目聰明，身體輕強，老者復壯，壯者益壽)是以聖人爲無爲之事，樂恬憺之能，從欲快志於虛無之守，故壽命無窮，與天地終，此聖人之治身也²⁰⁸⁾。 ※ ‘恬’은 ‘憺’으로 되어 있다.

治神養生의 근본을 설명한 이 구절은 도가가 지향하는 聖人(道の 體現者)의 실체를 나타내었다. 楊은 본문에 따라 간명하고 적절한 주를 달았는데, 예를 들면 “樂恬憺之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태소』 권3 「陰陽」) 怡神適性，即樂恬憺之能也²⁰⁹⁾。

이 注文은 주석자가 도가사상에 상당히 정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楊은 본문의 성인을 廣成子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여, 광성자가 황제에게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태소』 권3 「陰陽」) 吾以目無所見，耳無所聞，心無所知，神將自守，故人盡死而我獨存²¹⁰⁾。

202) 華陽陶隱居 集：『養性延命錄』『正統道藏』권31，法仁文化社，1987，p.24623.

203) 前揭書：『黃帝內經素問校注』，p.1149.

204) 上揭書：『疏五過論』，p.1149.

205) 上揭書：『疏五過論』，p.1149.

206) 前揭書：『黃帝內經太素』『順養』 권2，p.5.

207) 上揭書：『順養』 권2，p.5.

208) 上揭書：『陰陽』 권3，p.4.

209) 上揭書：『陰陽』 권3，p.4.

廣成子는 황제에게 양생의 도를 가르친 上古時代의 體道者로, 『莊子·在宥篇』에 이 말이 나타난다. 여기에 서 광성자가 황제에게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의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莊子·在宥篇』) 目無所見, 耳無所聞, 心無所知. 知神將守形, 形乃長生……吾與日月參光, 吾與天地爲常……人其盡死而我獨存乎.²¹¹⁾

楊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莊子』의 이 부분을 이어 받았음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廣成子の 말을 王도 「上古天真論」에서 인용하였는데, 『장자·제유편』에서 앞 문구와는 다른 구절을²¹²⁾ 인용하였다. 上記한 본문(『음양응상대론』)의 주에서 王은 「庚桑楚」와 「書經」을 인용하여 자신의 性에 적합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은 배제하는 것이 성인의 治身養生이라고 하였다. 쉽게 주해하였지만 楊注에 비해 사상적인 깊이가 부족하다.

아래와 같이 『태소』 권19 「知針石篇」(『素問·寶命全形論』)의 楊注에서도 도가사상의 영향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다.

② 黃帝曰, 人生有形, 不離陰陽. 天地合氣, 別爲九野, 分爲四時, 月有大小, 日有短長, 萬物並至, 不可勝量. 虛實呿吟, 敢問其方.

(楊 注) 萬物負陰抱陽, 沖氣以爲和. 萬物盡然. 三氣而生. 故人之形不離陰陽也. 從道生一 謂之朴也. 一分爲二, 謂天地也. 從二生三 謂陰陽和氣也. 從三以生生萬物, 分爲九野, 四時, 日月乃至萬物. 一一諸物皆爲陰陽氣之所至. 故所至處不可勝量……²¹³⁾

이 부분에서 王은 주석하지 않았다. 楊은 『노자』 42장에 기초하여(萬物負陰抱陽, 沖氣以爲和……從道生一, 謂之朴也. 一分爲二, 謂天地也. 從二生三, 謂陰陽和氣

也)²¹⁴⁾ 주해하였다. 여기에서 구태여 노자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楊이 도가의 이론을 중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上記한 본문 바로 뒤에 “針有懸布天下者五”라 하여, 질병치료의 要諦인 다섯 항목을 천하에 선포한 것이 있다. 첫 번째 “治神”과 두 번째 “治養身”에 관해서 楊은 분명히 도가사상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注釋하였다.

③ 一曰：治神

(楊 注) 存生之道, 知此五者以爲攝養, 可得長生也. 魂神意魄志, 以神爲生, 故皆名神. 欲爲針者, 先須理神也. 故人無哀悲動中, 則魂不傷, 肝得無病, 秋無難也……季夏無難也. 是以五過不起於心, 則神清性明, 五神各安其藏, 則壽近遐算. 此則針布理神之旨也. 乃是崆峒廣成子之道也²¹⁵⁾.

첫 번째 요체인 “治神”을 楊은 “崆峒廣成子之道”로 인식하고, 도가에서 말하는 ‘養神’인 ‘養生說’에 함치된다고 보았다. “崆峒”은 廣成子가 거주하는 곳으로 앞서 『장자·제유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제를 가르친 곳이다. “空同”이라고도 한다. 神은 오장에 배합되어 魂神意魄志로 나누어지며 “治神”은 神(생명의 근원, 狹義로는 인간의 정신)을 청명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楊注의 “人無哀悲動中……季夏無難也”²¹⁶⁾는 『태소』 권6 首篇(篇名未詳)의 본문(『靈樞·本神』篇에 해당)에서 영향을 받았다. 王은 “專精其心, 不忘動亂也”²¹⁷⁾라 하여 간략하게 주해하였지만 그 대의는 楊과 큰 차이가 없다.

④ 二曰：治養身

(楊 注) 飲食男女, 節之以限, 風寒暑濕, 攝之以時, 有異單豹巖穴之害, 即內養身也. 寶口慈以愛人, 和塵勞而不迹, 有殊張毅高門之傷, 即外養身也. 內外之養周備, 則不求生而久生, 無期壽而壽長也. 此則針布養身之極也. 玄元皇帝, 太上養神, 其次養形. 斯之謂也²¹⁸⁾.

210) 前掲書：『黃帝內經太素』「陰陽」권3, p.4.

211) 前掲書：『莊子今注今釋』「在宥篇」, p.279.

212) “必靜必清 無勞汝精 乃可以長生”이라 하여, 『태소』 권6의 首篇에서도 楊은 廣成子の 말을 인용하였다.

213) 前掲書：『黃帝內經太素』「知針石篇」권19, p.10.

214) 前掲書：『老子翼』권3 「下篇」, p.12.

215) 前掲書：『黃帝內經太素』「知針石篇」권19, p.10.

216) 上掲書：『知針石篇』권19, p.10.

217) 前掲書：『黃帝內經素問校注』, p.359.

218) 前掲書：『黃帝內經太素』「知針石篇」권19, p.11.

楊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單豹와 張毅의 일화를 알아야 한다. 蕭延平은 『淮南子·人間訓』에 이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補注하였지만, 『淮南子』보다는 『莊子·達生篇』의 記事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呂氏春秋·必已篇』에도 같은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화는 예로부터 人口에 膾炙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莊子』에 기재된 내용을 概略하면 다음과 같다²¹⁹⁾.

(『莊子』「達生篇」) 周의 威公에게 양생의 法을 물은 田開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일찍이 魯 나라에 單彪라는 인물이 있었다. 마을에서 떨어진 巖山에 살고 있었는데, 五穀은 먹지 않고 물만으로 연명하는 그의 피부는 철심 세를 넘어서도 어린 아기와 같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굶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 또한 張毅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高門(호화스런 門)으로 꾸민 부귀한 사람의 집이면 어디론지 찾아갔지만, 사십세가 되자 정신적인 피로로 열병을 앓아 죽어버렸다. 單彪는 안으로 고결한 정신을 유지하였지만 바깥 육체는 호랑이에게 먹혀버렸고, 張毅는 바깥으로 명리와 육체를 養하였지만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젊어서 죽었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양생설에는 육체의 長養에 중점을 둔 '養形'의인 養生說과 神、精神을 중시한 '養神'의인 養生說이 있었고, 상술한 바와 같이 內外 모두를 調和시키는 양생설이 혼재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內外는 內는 사람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의 정신생활에 침착하는 것이고, 外는 世間에 살면서 타인과 화합하고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楊은 單彪、張毅의 일화를 거론하여 '治養身'은 내외를 함께 조화시키고 심신을 함께 수양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楊注를 통하여 그가 도가사상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음을 부각시켰지만, 王도 도가사상에 정통하였음을 주석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道에 대하여 흥미하였고 養生에 흥미를 가졌다고 그의 『素問序』에서 밝힌 바가 있다. 도사인 玄珠子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自號를 辟玄子라 하여 스스로 도가임을 나타내었다. 楊과 王은

마찬가지로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두 사람이 받은 영향은 약간 다르다. 王은 '天真久遠'、'天真之道'、'天真法'과 같은 말을 자주 거론하여 道敎의인 냄새를 강하게 풍긴 반면에 楊은 대부분 『老子』와 『莊子』의 本文에 의거하여 주장을 전개시켜 도敎적인 냄새는 거의 느낄 수 없다.

III. 結 論

楊上善과 王冰의 注釋에 대한 比較論的인 考察을 통하여 內經醫學의 基底를 이루는 陰陽、五行、四時、道家思想 등을 중심으로 注釋의 方法과 內容을 比較 檢討하였다.

楊注와 王注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전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黃帝內經太素』는 『素問』과 『靈樞』 162篇을 解體하여 내용에 따라 20類로 나누어 귀납시키고, 各類 속에 약간의 小類로 나누었다. 楊上善은 『內經』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注釋하는 創始者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석은 全篇에 걸쳐 행해졌고, 그는 전통적인 訓古學에 의거하였으며 간결한 문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함부로 원문을 고치지 않아 원문의 본래 모습을 보존시켰으니, 그의 『黃帝內經太素』는 후세 『內經』 原文의 校勘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은 王冰이 『素問』만을 篇目을 재정리하여 缺損된 經文을 보충하여 주석을 달았다. 왕빙은 『素問』의 다른 편과 『靈樞』의 經文으로써 注를 하는 "以經注經"을 하였고, 나머지 古代經典의 諸家說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로써 설명하여 상당히 개성적이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天文、曆象、時令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상세히 注釋한 반면,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책을 인용함으로써 주석을 대체하였다.

주석을 통하여 두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개괄하자면, 楊注는 思想的으로 깊이가 있고 약간 思辨的인 경향에 치우치면서 격조를 지니고 있으며, 王注는 구체적이고 깊이 연구하여 쉽게 표현하였지만 恣意的인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물론 시대적인 환경의 차이나

219) 前掲書：『莊子今注今釋』「達生篇」, p.476.

개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처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太素』는 勅命을 받들어 저술한 것에 반하여 『素問次注』는 왕빙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작한 것이다. 양상선은 “通直郎守 太子文學”이라는 文章으로 조정에 侍奉하는 관직에 있었던 반면, 왕빙은 문장이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太僕令”(혹은 “京兆府參軍”)이라는 관직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주석의 태도나 방법, 내용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양상선의 『황제내경태소』와 왕빙의 『황제내경소문』 주석에 나타난 의학사상을 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시대적으로 오늘날과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의도한 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의학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선구자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앞으로 두 의가에 대한 더욱 깊은 천착을 기대한다.

IV. 參考文獻

1. 清·袁氏 漸西村舍 寫本 : 『黃帝內經太素』, 中國書店出版, 1994.
2. 篠原孝市 외3人 編著 :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影印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3. 蕭延平 版本 : 『黃帝內經太素』影印本, 人民衛生出版社, 1955.
4. 顧從德 重雕版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國立中國醫藥研究所出版, 民國49.
5. 郭霽春 主編 :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2.
6. 『欽定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64.
7. 姚振宗 撰 : 『漢書藝文志條理』『續修四庫全書』권914, 中華書局, 1985.
8. 裴駰 : 『史記集解』 권1『文淵閣四庫全書』권245, 臺灣商務印刷館, 1983.
9. 『禮記』 권6『漢文大系』권17, 新文豐出版公司, 1978.
10. 陳鼓應 注釋 : 『莊子今注今釋』, 中華書局, 1991.
11. 『老子翼』 권3『漢文大系』권9, 新文豐出版公司, 1978.
12. 成百曉 譯註 : 『周易傳義』, 傳統文化研究會, 1998.
13. 廖育群 : 『中國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1998.
14. 李茂如 외2人 編著 :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15. 裘沛然 외22人 : 『中國醫籍通考』 권1,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6. 丹波元胤 :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
17. 許慎 : 『說文解字』, 上海古籍出版社, 1981.
18. 馬持盈 注 : 『史記今注』第1冊, 臺灣商務印書館發行, 民國76.
19. 馬繼興 :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0. 皇甫謐 著 山東中醫學院校釋 :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21. 孫思邈 著 李景榮 외4人 校釋 :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8.
22. 啓玄子 述 : 『素問六氣玄珠密語』『正統道藏』권36, 法仁文化社, 1987.
23. 華陽陶隱居 集 : 『養性延命錄』『正統道藏』권31, 法仁文化社, 1987.
24. 張介賓 : 『類經』, 成輔社, 1982.
25. 丹波元簡 :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26. 徐春甫 : 『古今醫統大全』, 人民衛生出版社, 1991.
27. 岡西爲人 : 『宋以前醫籍考』, 古亭書屋, 1969.
28. 宮下三郎 : 『隋唐時代의 醫療』『中國中世科學技術史의 研究』, 角川書店, 1963.
29. 丸山敏秋 : 『黃帝와 醫學—〈黃帝內經〉의 성립에 관하여』, 日本醫史學雜誌 26권 4號, 1980.
30. 楊守敬 : 『日本訪書志』矢數有道, 『國寶仁和寺本黃帝內經太素에 關한 研究』, 漢方과 漢藥 10권 5號, 1943. 『方證學後世要方釋義—素問活用論文集—』, 自然社, 1977.